

90학년도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보고서

- 현대작가반 학술답사 보고서
- 구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현대작가반 학술답사 보고서

I. 결단식 및 편성

1988년에 이어 두번째로 시도된 현대작가반의 학술답사는 1990. 4. 24. 14:00에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예비모임을 겸한 결단식을 가지고 조편성 및 임무분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학술답사의 대상작가인 심훈, 윤곤강의 문학활동과, 대상지역인 충남 서산, 당진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성격에 대한 권영민 선생님의 특강이 있었다. 현대작가반의 편성, 조사대상(작가),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 편성

지도교수 : 오세영, 조남현, 권영민
선생님

조교 : 송기한

참가자 : 석사과정 현대문학 전공자
15명, 학부생 2명을 2개조로 편성

제 1조 : 장수익, 임태우, 진정석,
신수정, 구자진, 홍재범(이상 석사과정),
신원용(학부과정)

제 2조 : 배경렬, 김미영, 박상준,
조영복, 서영체, 남기혁, 조우드, 이
명찬, 김의수(이상 석사과정), 김윤경
학부과정)

○ 답사기간

1990. 4. 25~4. 27(2박 3일)

○ 조사대상 작가

제 1조 : 심 훈(1901~1936)

제 2조 : 윤곤강(1911~1950)

○ 조사대상 지역

제 1조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일대,
송악면 부곡리 일대

제 2조 : 충남 서산시 동문리 일대

II. 본 조사

4월 25일 오전 9시에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집결. 당일 오후 1시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 도착. 당진문화원의 도움으로 제 1조는 심훈이 작품『상록수』를 집필하였던 필경사를 방문하고 이어서 『상록수』의 주인공인 박동혁의 실제모델이었던 심재영氏를 찾아 『상록수』를 집필하던 당시의 심훈의 근황과 당시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브 나로드(농촌 속으로!) 운동에 관하여 상세히 청취했다.

한편 제 2조는 당진군 순성면 갈산리 소재의 윤곤강 묘소를 참배하고, 이어 일제 말 윤곤강이 낙향하여 살던 당진읍 읍내리 368번지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당진문화원을 방문하여 그의 생몰연대 등의 전기적 사실과, 작품활동 내역이 상세히 적힌 문헌을 제공받았다.

4월 26일 오전에 제 1조와 제 2조가 합류하여 당진읍 남산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상록탑」을 방문함. 「상록탑」은 심훈의 문학적 위업을 기념하여 건립된 것으로, 이외에도 당진지역에는 심

흔의 문학적 위업을 기념하여 매년 「상록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관해서는 당진문화원으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제공 받았다. 4월 26일 정오에 서산에 도착하여 서산시 동문리에 소재한 윤곤강의 생가를 방문하였다.

한편 당일 오후 4시에 담사단 일행은 안면도에 도착하여 여관에 투숙, 저녁 식사 후 본 담사의 대상작가인 심훈과 윤곤강에 대한 담사활동을 토론하고 정리하는 자체 평가모임을 가졌다.

III. 문학토론회 내용

4월 27일 오전에는 오세영 선생님으로부터 윤곤강의 문학세계에 대하여, 조남현 선생님으로부터 심훈의 문학세계에 대하여 특강을 들은 후, 이들의 문학활동에 대하여 학생·교수 간에 진지한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심훈의 「상록수」와 관련하여 1920~30년대 농민문학운동에 대한 열띤 논쟁을 가졌는데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0~30년대에 논의되고 작품창작으로 이어졌던 당대의 농민문학(론)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의 경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3.1운동 직후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농민운동의 확대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농민문학론인데, 이는 주로 이성환과 잡지 『조선농민』을 중심으로 제창되었으며,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자각케 할 수 있는 계몽적인

문학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조선농민』지 중심의 농민문학론은 작가의 참여가 없었고 실제 작품 창작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는 농민운동이 계급운동과 관련을 맺게되자, 1920년대 말기에 들어서면서 농민문학론도 계급문학론의 일환으로 자리잡게된다. 카프를 중심으로 진행된 두번째 단계의 농민문학(론)은 1930년대 벽초부터 안합평과 백철의 논쟁을 통하여 계급문학 내에서 비평의 쟁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1930년 11월 소련의 하리코프에서 개최된 「국제혁명작가동맹」 제 2차 대회에서 결의된 「농촌프롤레타리아 및 근로농민의 혁명적 문학에 관한 결의」와 일본에서의 왕성한 농민문학논의에 축발된 것이다. 한편 계급문학전영은 실제 작품창작에 있어서도 「고향」「홍수」「서화」「목화와 콩」과 같은 주제에 대한 활발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기영의 「고향」은 당시 계급문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리얼리즘적 성과라는 점에 기준의 평가가 일치하고 있다.

세째는 同友會이념과 브나로드 운동에 입각한 한 줄기의 농민문학(론)이 있다. 우선 동우회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는 이광수의 작품 「흙」(1932)이 있으며, 심훈의 「상록수」는 문맹퇴치와 농촌체육운동을 목적으로 한 브나로드 운동에 기반하여 산출된 것이다.

이번 현대작가반의 학술담사의 대상작가인 심훈의 「상록수」는 이러한 문

학사적인 맥락에서 산출된 것이며, 그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는 결국 이러한 여러 농민문학(론)의 구체적인 성과 특히 민촌의 「고향」과 같은 현실주의 계열의 농민소설과의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데에 답사단원 간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시인 윤곤강(1911~50)은 1934년 카프 제 2차 겸거에 관련되어 전북 경찰부에 불들려 갔다가 동년 12월에 석방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 그의 왕성한 문학활동에 비하여 기존의 문학사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시인이다. 그는 시집 「만가」(1937), 「동물시집」(1939), 「빙화」(1940), 「살어리」(1948), 「괴리(1948)」을 상재하였는데 이는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에

비하면 엄청난 양의 작품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윤곤강에 대한 답사간원 간의 토론은 그다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 시인의 문학활동에 대하여 대체로 무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답사를 바탕으로 해서 윤곤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문학사에서 소외되었던 카프출신의 시인, 월북시인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왕성한 문학사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IV.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

5월 1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을 가짐.

구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1. 답사지역 및 조편성

구비문학반에서는 1990. 4. 25(수)부터 4.28(토)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원주시, 원주군 일대에서 답사활동을 하였다. 답사에 앞서 4.23(월)에 서대석·권두환 선생님을 모시고 제반 준비사항을 확인한 후 답사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구비문학반의 조사대상 지역 및 조사원은 다음과 같다.

○ 지도교수 : 이상택, 김병국, 서대석, 권두환 선생님

○ 조편성 및 지역 분담 내역

제 1조—원주시 일대 : 서대석(교수)
김남기(서사과정), 조해숙(서사과정)
전병득(학부), 임미선(국악과 박사과정)

제 2조—소초면 일대 : 권두환(교수)
박경주(박사과정), 박종성(서사과정)
이지하(서사과정), 김탁환(학부)

제 3조—지경면 일대 : 정운채(박사과정), 이인경(서사과정), 송팔성(서사과정), 장대철(서사과정), 조윤주(학부)

제 4조—신림면 일대 : 이종목(박사과정), 류준필(서사과정), 김은정(서사과정), 황재문(학부), 이정선(학부)

제 5조—문막면 일대 : 신동흔(박사과정), 이주영(박사과정), 정한기(서사과정), 최인성(서사과정), 김학균

(학부)

2. 활동내용

1990. 4. 25. 9:30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11:30 경에 원주에 도착하였다.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조별로 조사에 임하였다. 4.27 오후까지 조별 조사활동을 마친 후 4.27 저녁에 관부면 금대리 치악산 기슭에 진결하여 자체평가회를 가졌다.

조별 활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 4월 26일 원주시 내 원주문화원에서 그 곳 원장으로 계신 황주익 씨로부터 치악산 상원사 전설 등 지명에 관련된 설화 십여 편을 채록하였다. 4월 27일에는 전날과 동일한 장소에서 황주익 씨, 이치중 씨로부터 약간의 설화를 채록하였으며, 원주시내에 거주하는 최병렬 씨로부터 산신축원 등 두가 몇 편을 채록하였다.

제 2조 : 4월 25일 오후 소초면 평장리 공산마을에서 박수근 씨를 만나 설화 2편과 민요 1편을 채록하였다. 26일에는 평장리 경로당에서 노인 20여 명을 만나 금척설화 등 설화 10여 편과 모내기 노래 등 민요 10여 편, 그리고 약간의 經文을 채록하였다. 27일에는 치악산 기슭의 마을들을 방문하였으나, 적당한 제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제 3조 : 4월 25일 오후 간현리에서 김인영 씨로부터 가문전설 2편을 채록

하였다. 26일에는 간현역 광장에서 유동구, 심상전씨로부터 민담 2편, 잡가와 민요 3편을 채록하였으며, 월송리에서 정인시씨로부터 민담 3편을, 경묘남·허화순 할머니로부터 민담 4편과 잡가·민요 7편을 채록하였다. 자료 중 심상전씨가 구연한 설화는 복합적 구조를 지닌 장편의 자료였다.

제 4 조 : 4월 25일 신림면 성남리 일대에서 안창복씨로부터 '거짓말 잘해 장가들기' 외 설화 3편, 민요 3편을 채록하였으며, 26일 용담리에서 권인주·김경진·윤석하 등의 제보자로부터 설화 6편, 민요 3편을 채록하였다. 27일 치악산 정상의 상원사로 가서 종소리 설화에 관해 탐문하였으나, 적당한 제보자를 만나지 못하여 자료를 채록하지 못하였다.

제 5 조 : 4월 25일 오후에 문막리의 김동윤·김봉열씨 등으로부터 지역전설 20편을 채록하였고, 26일 오전에도 문막리에서 김성현·박태훈씨로부터 설화 6편을 채록하였다. 26일 오후에는 궁촌리의 박광우·소성만씨로부터 설화 14편을 들었다. 27일에는 신동흔·최인성이 후용리 안상회씨로부터 4시간에 걸쳐 설화 10편을 채록하였고, 이주영·정한기·김학균은 부론면 지광국사현묘탑비를 답사하였다. 민요 조사도 시도하였지만, 적절한 제보자를 찾지 못하였다.

3. 평가회 및 해단식

○ 자체평가회 : 4.28 저녁에 담사에

참가한 인원 전원이 판부면 금대리에 집결하여 자체 평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쉽게 제보자를 만나지 못하여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담사가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담사활동을 통해 몇몇 훌륭한 제보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성과로 정리되었다. 한편, 담사활동이 학과의 전체적인 대동단결을 위해 좀더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전체평가회 및 해단식 : 1990. 5. 29. 1-207에서 학과 주관으로 전체평가회 및 해단식이 있었다. 구비문학반은 최인성(석사과정) 군이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 이 지면을 빌어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자료들을 구연해 주신 제보자 여러분과 원주군청, 문화원, 노인회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 지면관계상 채록된 자료 중 일부만을 뽑아 수록한 것임을 밝힌다.

I. 원주시

[조사마을 : 원주시(原州市)]

강원도 남서부에 위치하는 시로 총 14개의 동(洞)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90.60 km^2 , 인구는 13만을 넘는다. 북쪽으로 원성군 소초면·호저면, 서쪽으로 원성군 지정면·홍업면·판

부면, 남쪽으로 충청북도 체원군 백운면, 동쪽으로 횡성군 안흥면, 원성군 신림면 등과 접한다.

시 전체가 화강암지대이고 동남부에 차령산맥이 달리며 그 중에 치악산이 높이 솟아있다.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까닭이 발달한 편이다.

본래 고구려 때에는 평원군(平原郡)이라 불렸고 신라 문무왕 때 북원경(北原京 : 小京)이라 했는데, 고려 태조 23년, 즉 940년에 원주로 고쳤다.

우산동에 원주경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전적·갈포벽지·가발·완구류를 생산하는 17개의 수출업체가 있는 데, 도로·대지·학교용지 등이 증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지면적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시내에는 일반시장과 함께 채소시장 및 가축시장 등 특수시장이 있다.

문화재로는 나전칠기장을 비롯하여 원감영문루 및 선화당, 석불좌상, 5층 석탑 등이 일산동에 있다.

〔원주시 제보자 1〕

중평동 원주문화원, 황주익, 남·70세
1990. 4. 26. 서대석, 김남기, 조해숙,
전병득, 임미선 조사

원주문화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원주 일대의 고사, 지명전설, 유래담 등에 대해 두루 밝으셨으며 시내의 무당 등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문화원장으로 제작하는 동안에 원주지방의 전설과 풍습에 관한 책자를 출간하신 책

이 있으며 특히 원주방송국에 출연하여 고사·지명전설 등을 천 여회쯤 방송해 오셨다고 한다.

강원도 여주가 원래 고향이며, 정식 학교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주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셨다고 한다. 다만 소학교에 4학년으로 편입, 2년만에 졸업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 해소때문에 심하게 고생하신 후여서 구연도중에 가끔 숨이 차 하셨으나, 수차례의 방송경험 때문인지 이야기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발음과 성량, 흥미유발의 요소들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구연자였다.

지명전설 등 여러 편을 구연했으나 그 가운데 비교적 길이가 길고 서사적 전개가 분명한 <치악산 전설(상원사 전설)>과 <치악산 돌무덤 이야기>만을 소개한다.

제공한 자료 : 설화 1, 2

○ 설화

1. 황주익 : 치악산 상원사 전설
2. 황주익 : 치악산 돌무덤 이야기

〔원주시 설화 1〕

원주시 중평동 원주문화원, 1990. 4. 26. 서대석, 김남기, 조해숙, 전병득, 임미선 조사

황주익, 남·70세

〈치악산 상원사 전설〉

예, 대개 그 치악산이 원래는 불을 쳐자 '적악산'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게 설이 두 가지 설이에요. 어떤 설에서는 도를 닦기 위한 하나의 도인이 사당, 또 어떤 얘기에서는 영동 사는 어떤 무사, 청년이 서울부 문과를 놀기 하려 가던 길에 치악산을 넘다 그랬다, 이제 마 어느 쪽이 됐든 얘기는 다 똑같아요. [네에]

근데 이제 그 무사가 이 치악산을 이렇게 넘다가 보니까 한 군데 다다랐는데 평이 꺽꺽하고 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보니까 시방 나무 위에 구렁이 한 마리가 올라가서 밑에 있는 평을 노리니까, 평이, 암꿩이 구렁이의 놀을 받아가지고 옮기지를 못 하구서 꺽꺽하고 소릴 질르는 게 저 혼자가 아니라 이 배 밑엔 시방 새끼를 여러마리 품고 있었다 이겁니다. [네] 그 새끼가 들락날락하고 아래는 걸 이 무사가 가만히 보아 하니까 시방 저 구렁이가 내려 덮치면 저 생명이 다 죽겠다. 근데 평 한 마리만 잡어 먹으면 저 새끼들은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 생명이 없어 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구 어떻게든지 저 구렁이가 저걸 못 잡아먹게 저 평을 도망을 가도록 해 줄야 겠는데, 놀을 받았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그 놀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자니 저 구렁이를 저기하는 수 밖에 없다 아래가지구 활시위를 맹겨 가지고 머리를 맞혔어. 잡아먹질 못하게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구렁이는 죽으면 생명이 하나고 평은 죽으면 여러 생명이다.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수 밖

에 없다' 이런 정신으로다가 활을 쌌다는 거죠.

그래서 활을 쏴서 구렁이가 탁 떨어지니까. 대개 저네 놀이나 구렁이 놀이나 놀을 받았을 때 잠깐 놀을 피해면 사는 거죠. 그때 그 구렁이가 그만 떨어지니까 평은 살아가지구서 새끼 몰구 갔다 이겁니다. [네에]

그래 자기깐에는

'이에 구렁이 한 마리는 저기 하지 만 평이 다 살아가서 참 좋겠다'

구, 아래는데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해가 언제 다 넘어갔는데 어디 갈길은, 산을 내려와야 되겠구, 해서 실컷 헤매다보니까 벌써 어두웠는데, 산을 못내려가구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 내가 이 뭐 걸을 잘못 들었느냐 아래가지구 한참 헤매다 보니까 한 군데 불이 반짝반짝해서 그 불방향을 보구 찾아가다 보니까 집이 하나 나타나서, 그 문간에 가서 주인을 찾았답니다. 주인을 찾아가지고, 찾으니까 참 이쁜 아낙이 하나 나오면서

"누굴 찾으십니까?"

그래

"이제 내 시방 가던 객인데 날이 저 물어서 참 쳐기 못하겠으니 하루 저녁 여기서 좀 쉬어갔음 좋겠다. 날 좀 쉬어갈 수 있게 해 줬음 좋겠다."

하니까 '아 그러시냐'고. 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 '들어오시라구' 아래면서 안으로 모셔 들어서 그래 따라 들어가 보니까 방을 하나 저기 해 주어,

서 들어가 앉아 있다 보니까 저녁상을 차려왔는데 참 잘 차려다 쇠서 그걸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 먹고 나니 실컷 낮에 걸음걸던 사람이 저녁 먹고 나니까 식곤증도 생겼겠죠. 잠이 들 와서 자렸는데,

얼랄 자다 보니까 몸이 이상하거든요. 몸이 조여 들어 가는 게 아주 이상해서 깜짝 놀래 깨 가지구 보니까 이미 때는 늦은 게 구렁이가 내 몸을 감았다 이 말입니다. 구렁이가 내 몸을 통 감고 샛바닥을 날 ---
터 밑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무신 원수가 저서 남의 남편을 죽였나. 오늘 니 구렁이 죽인 게 내 남편이다 말이야. 우리는 산에서 천년 아니, 집에서 천년, 물에서 천년, 산에서 천년, 삼천 년을 도를 뛰어서 이제 용이 돼서 승천을 해야 되겠는데 저기 매달려 있는 저 종이 울리질 않아서 시방 승천을 못해. 그래서 그 종이 울릴 때를 시방 기달리고 있는데 니가 우리 남편 죽였으니 이제 우리 승천도 못 하고 삼천 년 헛살은 거 아냐. 그러니 내 널 죽여야 되겠다. 내 웬수로다. 남편 죽인 웬수니까 널 죽여야겠다.”

그래 듣고 보니 뭐 참 괴롭 길은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뭐 죽이구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참 그 징을 살리는, 여러 생명을 살릴려는 그 마음 뿐이었지 편견 없다. 살생을 할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랬는데 과연 잘못됐다.”

그래 인제 죽인 건 분명하니까 그 잘 못됐다 이해니까

“살 길이 하나 있다.”

“살 길 뭐나?”

“당신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 종을 울려라. 세 번만. 저 종소리 세 번만 계명성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탑소리가 나기 전에 저 종소리 세 번만 울려 주면 나는 승천한다. 그러면 너두 살 수 있지 않냐. [네에] 그래서 그 기회를 계명성 나기 전까지 시간을 줄 테니, 기회를 줄 테니까 해 봐라.”

그래 자기 암단 생각해두 그 뭐 공중에 매달렸는데, 밤중에 나가 볼 수도 없구, [웃음] 그 뭐 종이 어떻게 됐는지 두 모르겠구.

그래 그 참 꼼꼼히 생각을 하구 있는데 난데없이 어디서 종소리가 ‘메애’ 하구 났단 말이야. 근데 제 귀에도 세 번이 났다 이거야. 옆에 있던 아낙이, 도루 구렁이두 됐다 여자두 됐다 이제 이해는 모양이죠? 그 아낙이 나가 재주를 풀썩 풀썩 넘더니 큰 용이 돼 가지구 꼬릴 흔들면서 승천을 했더라 이겁니다.

저 그래구 날이 밝았는데, 하두 과이하게 생각하구 방에 있다가 잠두 못 자구 있다 날이 밝어서

“참 이상한 일두 다 봤다.”

이래서 이제 나가서 보니까 그 앞에 큰 낭구에 종이 하나 매달렸는데 그래 그걸 보구 저 종이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났느냐 말야. 사람이 저 우에 올라갈 수도 없을테구. 거 어떻게 해서 났느냐.

그래서 그 종 밀을 떡 가 보니까 큰 쟁기가 한 마리 죽었더라 이거야. [네에] 떨어져 죽었는데 보니까 이 부리, 이 입이 이게 부서졌드라 이거야. 그 래 그 놈이 아마 자기를 살려 준, 새끼를 살려 준…, 그 보은이죠.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자기를 죽음으로써 은혜를 갚은….

그래서 ‘평의 보은’이라구 그릅니다. 평의 보은이라구. 그래서 그걸, 죽은 평을 쳐다 보니까.

“나가 은행 갚았구나. 날 살려줬구나. 참 고맙다.”

이래면서 그걸 들구 가서 양지쪽에 다 이제 어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 난 그게 어디 묻혔더냐 그걸 찾아 본다구 해 봤지만 그걸 찾을 길은 없구.

[조사자 : 아니 근데 상원사…] 그래서 이제 (뭐요?) 그래 가지구 승천하고 평은 갖다 양지쪽에 묻어 놓구 이래구 나와 떡 보니까 자기가 있던 기와집이 없어졌어. 기와집이 없구 그 앞에 굴이 하나 있거든. 바우굴이. 아주 네모 면듯한 굴이 있어. 지금도 그 굴이 있습니다. 고대루. [조사자 : 그럼 거기서 갔대는 거죠?] 그렇지. 그 때 거기서 잔 거야. 그리구 그 앞에 보니까 조그만 암자같이 다 헐어져 가는 암자 가 있지만 사람은 없었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참 평두 온 혜를 갚는구나 이래구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적악산인데, 불을 쳐다 적악산인데, 이 평을 참 영원토록 참 저질 해

주자면 만 길이 없다. 평 치자를 넣어 주자 그래서 평 치자를 넣어서 치악산 으로 했다 하는 전설이 바로 그 치악산 전설이죠.

[원주시 설화 2]

충평동 원주문화원, 1990.4.26. 서 대석, 김남기, 조해숙, 전병득, 임미선 조사

황주익 남·70세

<치악산 둘무덤 이야기>

원주 치악산이 남대봉이 있고 이제 비루봉이 있고 이런데, 에 이 북단에 있는 게 비루봉이고 남단에 있는 게 남대봉이구 이렇죠. 북단에 있는 비루봉의 높이가 1,288이란 말예요. 해발 1,288인데, 거기에다가 그저 한 20m 높여놨다 이제 그래서 얘기거리가 되구 있죠.

시루봉에다가 세 개의 탑이 있는데, 석탑이죠. 그 위 돌을 다듬어서 탑으로 쌓은 게 아니고 그냥 막돌 쫓아다가 이렇게 단을 줄 그어 가면서 그러니까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쌓아올린 건데. 그걸 쌓은 사람이 ‘용진수’라는 사람입니다. 용진수라고, 이 뭐 배우지는 않은 사람이예요. 그래서 셈베라는 과자를 구워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과업을 하는 사람인예.

그 사람이 신유생, 나이가 이제 살아있으면 금년 70이예요. 나하고 동갑인데. 예, 그 분이 몇 해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그걸 쌓았는데.

그들, 그 석탑을 쌓기까지에는 여태가
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 뭐 나와 며도는 얘기하구는 거의
거리가 먼 얘기구.

그 분이 누구하고도 얘길 안했습니
다. 누구하고도 탑 쌓는 데 대해선 큰
얘길 안 하구. 각 신문사 뭐 이런 데
서 와 가지구 그렇게 저길하구, 이 매
스콤에서도 유행이 되든 일체 자기 입
으로서 말을 안한 사람이예요. 그러다
가 가끔 인제 여기와서 서투 친한 사
이에서 인제 저길하면,

“그 뭐 대단치두 않은 걸 가지구는.”
인제 이런 정도로 하고는 이랬죠.

근데 원래 그 사람이 그걸 쌓기 시
작한 것은 예 집안에 그 아들이 있었
어. 그때 아들이 없어서 인제 그 아들
을 보구 싶어서 했는데.

그 부인이 아마 두 번인가 세 번인
가 인제 부인이 또 세루 들어오시구.
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술하에
자손이 저기하지 못하구 이래니까 일
상 그걸 염두에 두구 있다가, 그렇
게 되니까 꿈이, 현몽이 꾸어졌겠지.

하루는 꿈을 꾸니까

‘네가 삼도가 내다뵈는 데다가 삼도
의 들을 모아다가 세 개의 탑을 삼년
에 세워라’

이런 그 꿈의 현몽을 얻었답니다.

그래 가지구 이 사람이 인제 그걸 쌓
기 시작했는데, 삼년 동안에 세 개의 탑
을 삼도가 내다뵈는 데다가 세워라 하
니까 그 삼도가 내다뵈는 데를 찾아
다니다 보니까 바루 비루봉이더라, 그

인제 여기서는 그걸 시루봉이라 그립
니다. 그 우리 그냥 저기 말로 시루봉
시루봉 이래죠.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 이래서. 그래서 그 시루봉에 올
라가서 보니까 경기도하고 충청북도하
고가 환히 내다된다. 강원도 땅이구.
그래니까 삼도가 여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 한국의 판도, 이 한
국지도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중심이
젤히더라, 그래서 여기로구나 하는 생
각을 가지고서 거기다 터를 잡은거죠.
잡구서 인제 쌓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엔 거 다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외투를 입고 이태구선 아주 차림도 저
기하게 차리구 이런데다가 주리목을
짊어집니다. 리구사구같은 거. 그 주
리목을 지구. 그리구 인제 한 손에다
가 조그만 망치를 하나 들구 이래구 여
기서부팅 떠나는 거예요. 이 저 자기
집 앞에, 요 봉산동에 살았는데. 거기
서 매일 그 셈베 구워서—모나카라는
거 있죠? 그거하구 셈베를 구워서 먹
구 살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그 개울로 나
가면 그 개울로 쭉 따라올라가요. 따
라 올라가면서 자기 눈에 띄는 둘, 요
만한 둘이 있으면 고걸 거 망치로 서
너 번 톡톡 두들겨 봅니다. 그래서
고걸 집어들구 그 인제 한없이 가요.

실컷 가다가 또 어느 지점에 가선
또 어떤 둘을 톡톡 두들겨보고 먼저
가지고 오던 둘을 거기다 놓고 그 둘
하구를 바꿉니다. 바꿀 때마다 가만히
보면 풍쟁이 둘이 바뀌어져, 그 크기

가. 그래서 가지구 또 올라가구. 이래 면 대개 여기서 인제 저 입석대라는 테가 있어요. 그 입석 골짜구니로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갈 때쯤 되며는 거의 어깨에다가 이래 둘리 멜 정도의 돌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턱 밑에까지 갔을 땐 갑히 우리로서는 좀 들기 어려운 거 정도가 그 어깨 위로 올라갑니다. [예] 예.

그래 해서 뒤 이래 가지구 올라가서 현장에 가서두 뒤 어디다 집어서 놓구 이리질 않아요. 이래구 가서 이 보다간 이 어깨에 축축하구선 그 딱 떨어지면 그게 놓은 자리야. [웃음] 다시 그걸 한 번 떨어진 걸 다시 고쳐 놓는 법이 없었어. 그렇게 해서 둘려 놓고 그리고 안 채우구 이래군 또 한 켜 둘려놓구 또 채우구, 참 이래 올라가더 구먼요.

그 인제 내가 그 때 산악회장을 허구 또 치악산은 뭐 일주일 두 번 세 번 올라갔으니까. 거의 참 올라가면 그 걸 꼭 구경하구. 여기서 뭐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녀? 어쩐고?”

이래든

“여기서 해 먹어요.”

꼭 거기 일할 때 자기가 거기서 밥을 해 먹구 저녁엔 자구 이렇게 하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를 과자장수를 하고 하루 가서 쌩고, 또 내려와서 이를 하고 하루 가서 쌩고 이랬는데 거의 일년은 과자장수를 하루 하고 이를 가서 작업을 하고 그 바뀌더라구. 그

래서

“아이 어보, 밤난 탑 쌓아놓구 그거 먹구 사는 것 두 아닌데 그 애들 허구 웬찮어?”

그 딸이 있었어.

“그 뭐…?”

하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뒤가 이상하나 허문. 하루를 일을 허구 하루 가서 하나 이틀을 다 일을 허구 이를 하나 매상고가 똑같단 말야. [과자파는 일요?] 파는 일, 수입이. 하하. 그 뭐 매일 가서 하구 저녁에 조금만 구워서 팔지뭐. 이래든 그럴 순 없구. 하루만해두 이를 먹을 건 된다 이거야.

그 어머니가 있어요. 에 그래서 어머니하고 마누라하구 그래 있는대두.

“식구들 다 굶기지 않으면 돼.”

이래든

“에이, 식구야 굶김니까?”

이래든서 그걸 쌓기 시작한 거야.

그러더니 삼년 동안에 거뜬하게 세 개가 다 올라갔습니다. 아주 잘 올라갔어. 그때 한 번 가니까.

“어, 거의 다 됐네. 거 참 웅장하게 됐다.”

이랬더니.

“아 근데 삼도의 돌을 쫓어 올려니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 경상도 돌을 좀 가져왔죠.”

그 저 이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까지 올라가는는데 그 단이 좀 힘잖아요? 이렇게 좁힐 때 여기 턱이 생긴단 말야. 여기다가 그 저 바둑돌, 바닷가에

반들반들하는 그 바둑돌. 고거 조그만 거 있잖아, 차랑말야. 그 놈을 거 포대로다가 한 포대 쭉 깎아놓은 거라.

그래서 여기 조 아래 저 청송로, 거기서도 개울에 그 조약돌 쫓어 오구. 이래가지구.

“삼도 돌이 아니라 사도 돌을 갖다 깎아두 되겠다.”

하하. [웃음]

자, 이래서 그걸 해 봤는데, 하룬 그래요.

“이제 다 했으니까 일 다 끝났어요.”

그러더니 하룬 와서 이 사람이

“에이, 또 하게 될래나 봐요”

“뭘? 일 다 했다면서.”

“암단해도 요새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이상하단 말야. 저게 무너질 것 같아요.” [네에]

“무신 소리야. 일껏 해 놓구. 삼년
색이나 저기 해 놓군 무신 소리야.”

“암단해 두 이상해요”

이래더라구. 그래문서 날 보구

“거긴 가서 아무것두 놓구 절해선
안 돼요.”

[네에] 네. 거기들 요새 뭐 들도 갖다 놓는 사람이 있구 이런데. 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뭐 그런다구. 점 땐 어떤 사람이 사과 뭐 이런 걸 다 갖다 지져분하게 봤더라구. 아 그 깨끗한 데.

복판엔 용왕신이구(웃으면서) 뭐 또 산신이구, 하난, 하난 천신이구. 네 이 렇게 아주 저길 정한 모양이야.

“아 그런데 그 깨끗한 데다가 그런

걸 갖다 놓구. 빙구. 그거 빙다구 됩니까?”

[웃음] 하더니,

“하여튼 거기 가실 땐 초 이런 것두 가져가지 마시구. 그냥 가서 앞에 가서 두 손 합장하구 그래구 가만히 내가 생각하구 원하는 것만 얘기하쇼. [네에] 그래야 되지 거기 지져분하게 뭐 돈 놓구 이러지 말라구. 그거 한번 일려주오.”

그러더니 한 번은 와 가지구.

“아, 이 대통령이 한 번 거길 와야 될 텐데. 아 그 양반이 바보예요. 꿈을 몇 번 꾸었을 텐데 안 온다.”

이거야. [네에]

“아 그 미친소리 하지두 말라구.”

[조사자 : 통일기원, 그 와서 통일기원을 하라구]

그런데 이제 저 분이 시작한 것은 그렇게 해서 꿈 얻은 거 가지구 시작한 사람이예요. 발견 아무것두 욕심이 없어. 전연 욕심은 없는 사람이예요. 나하구 자주 이렇게 만나 얘길 해두.

그래 나하군 달리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산악회장을 하면서 일상 거 거길 올라다니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죠. 그 이러니까 과자장수, 그 모나카 같은 걸 이렇게 팔려 다니다가 그 걸 팔다가 남으면 여기 내 책상에다가 그걸 꽉 쌓아둡니다.

“그 왜 여기다 갖다 쌓아놓지?”

이려면

“잡수시래요.”

“누가 잡수시래?”

“신께서 뭐 이걸 남겨주시잖아요.”
 “왜, 문화원장 주라구?”
 “예. 줬으면 됐죠.”
 하하.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구 쏟아 놓으면 그때문 이해보다가 한 일이천원 저기 주며
 “가져 가.”
 이러면
 “내가 돈 받을려구 그걸 가져와요?”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이면 세, 네번은 그래. 외려 미안하기도 허구 이랬는데.
 하룬 가서 죽을 상이 돼 가지구 왔어.
 “왜 그래?”
 “요새 산에 안 가셨죠?”
 “아니, 못 갔는데.”
 “무너졌어요.” [아아]
 “왜 무너져?”
 “벼락이 맞았죠.”
 하하. 거 제 입으로 그래. 벌 받았다구, 벌 받았다구.
 “뭘 또 잘못했나? 벌 받게.”
 그러니까
 “내가 받았나요? 괜히들 거 쓸데없는 짓들 해 가지구 그랬죠.”
 세 개가 다 무너진거야. 그 인제 우리가 얘기하면 낙뢰를 맞은 겁니다. 거기가 그 저기 하구 이해니까 그 낙뢰루 한꺼번에 와르르 한거지 뭐, 다. [네에]
 그래서 그 날 내가 만 일을 제쳐놓구 쫓아 올라가 봤죠. 가 보니까 아주 싹 쓸었어. [네에] 그 참 있던 게 없어지

니까 섭섭하기 두 허고. 또 그 사람 수고한 걸로 봄선 너무 저기하다 이런데.
 “또 쌓을래요.”
 “왜, 또 쌓으래?”
 “그러믄요. 또 쌓으라면 또 쌓아야죠. 또 삼년 해야죠.”
 이러더니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게 또 삼년만에 된 거야. [조사자: 네에. 두 번째요] 응, 두 번째. 삼년만에 떴어.
 그러더니 하 그래구 나서. 아, 이 얘길 나 안하는 얘긴데…(주저하며)
 “암만해두 조신치 않은데.”
 “뭐가?”
 “혼자만 아세요, 국모가 죽어요, 죽어.”
 나 이러니
 “그 무신 소리냐? 국모가 임마 우리나라에 두신 국모가 있어?”
 “왜 없어요? 있지. 두고 보세요. 한 일주일 있어 보면 알거요.”
 그 애길 허구 갔단 말예요. 그 뒤에 바루 육영수 여사 [네에] 저격사건 나가지구.
 아주 섬뜩해지네요. 그 다음부턴 인제 그 사람보믄 무서워. [웃음] 저 사람 무신, 임만 벌리면 내가 무서워지더라구. 그래 인제
 “절대 여기 못 와라. 난 자네 이제 보기두 무서워.”
 “왜요? 나 오늘 바가지 세 개만 사주세요.”
 “무신 바가지 둘?”
 “뭐 그저 물 푸는 바가지 세 개만..

그, 문화원장님이 사셔야 된대요.”

“누가 그래?”

“신께서 그러시대요.”

이 사람은 뭐라 그레믄 신께서 그렇대. 하하. [웃음] 아주 그 소리만 나오면 질리더라고.

“그 얼마나 한대?”

“그까짓거 뭐 한 개 한 300원씩쯤 되겠죠. 아 그 참 그까짓거 그거 못 사서 사 달래요? 그 살 사람이 따로 있으니깐 그러죠.”

그래 돈 천원을 꺼내

“그래 이거면 되잖아.”

“예. 그럼 가 사 올께요.”

나가서 세 갤 딱 사 가지고 와서 돈백원을 갖다 여기다 봐.

“그건 또 뭐야?”

“남았네요.”

아주 재밌는 친구였어요. 예.

그러더니

“또 쌓아야 되겠는데.”

“아니 그 왜? 또 무너지나?”

“또 무너져요.”

“또 뭐 잘못 됐구먼.”

“십년 채워야죠.”

허허. [네에] 그러더니 그 놈이 또 낙뢰를 맞은 거야. 그래서 그 저 밀이, 밀이 바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마 비가 오구 이럴 때 그 산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어. [조사자 : 모르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무얼 생각했는지

“나 세멘 몇 푸대 있어야 되겠는데.

세멘을 어떻게 사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 그 필요하면 내가 좀 사 줄까?”

“안 돼요. 그건 아무 힘 빌리면 못 써요.” [아아]

“그럼 뭐, 왜 나한테 그런 얘길 해.”

“그럼 그걸 어떻게….”

어쩐지 우물쭈물하고 말도 확실히 안 하고 이러더니 그냥 잣단 말야.

그러더니 한 잇새 후에 와선,

“두 개가 무너졌어요.”

“그럼 한 갠 살았나?”

“것두 다 무너버렸죠, 까짓거.”

그러구는

“다시 할래요. (……) 근데 이제 못 하겠어요.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애요.”

“그 어떻게 그래. 여태 쌓아 오던 걸.”

“그렇지만 죽기 전에야 어떻게 하나 해 놓구 죽어야죠 뭘.”

이래구 시작한 게 이제 고 육년 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세번째 또 덤비는 데 보니까, 세멘을 얼마나 쳐다가, 쳐 올렸는지. 좌우간 그 사람 기운쓸 때 보면 무서워요. 세멘을 한 두어 포 같은 거 여 어깨에 메고 올라갔을 거예요. 거기 가 그 돌을 보면 그런 걸 뭐. 저 돌을 어떻게 저걸 저울렸을까 이럴 정도니까. 근데 그걸 누구의 도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게는 졌어요. 그래 내가

“남의 도움 안 받는다더니 지게는 왜 도움을 받아?”

[웃음] 그러니까,

“거 올라갈래니깐, 메고 올라갈래니

간 영 불편해서.”

그래서 지게루 지고 올라가니까 편하다 이거여.

그러더니

“하 참 별일 다 봤지. 그 오늘 마침 올라오셨으니 나 바자지 좀 찾아주소.”

“왜? 바자지가 어떻게 됐나?”

이러니까

“어느 놈이 바가질 갖다 숨겨 놨는데, 내가 그걸 찾나 못 찾나 고걸 불라구 숨겨 놨는데 아까 신한데 물으니까 찾아 주데요.”

“그래 그 왜 날더러 찾으래?”

그러니까, 아 바자지를 소나무 요렇게 보거지를 발짝 뽑아 가지구 거기다, 그 밑에다가 파 묻었다 이거야. 그래 구 고 위에다 소나무를 심었다 이거야. [조사자: 그걸 찾아냈어요?] 예.

“그래 그걸 어떻게 찾았어?”

“신장액 찾아 주네요.”

“아 신장도 부리나?”

“그 뭐….”

바자지가 없어질 리가 없는데 없어졌으니 그 어느 놈이 갖다가 내버리겠나 하구 사방 찾았다네 두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신보구 찾아 달라고 했더니 대번 찾아 주네요. 하하.

자. 이래니 그게…, 아주 그 사람 때문에 애 많이 먹었어요. 겁두 나고.

아, 이래더니 세번째 또 쌓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는데 세멘을 갖다가, 밀을 세멘으로다가 밀깨를 세멘으로 고정을 시키면서 쟁아 올라 가더구던요. 고 밑에만 저기 틀하고 위는 이제

세멘은 안 썼어요. 고 밑께만. 예 그래서 완전 그 아래 흔들려서 그게 밑께가 미끄러져서 저기 되니까, 그걸 터득해서 한 게 아닌가 봐요. [네에]

그래서 다 쌓아 놓구, 그때 이편 짹껴하구 이편 짹껴 하구 두 개는 다 쌓아 놓구, 요편 짹, 그러니까 이 우측에 께 고건 맨 끝단 하날 마무릴 못지었습니다. 마무리를 못 짓구 이랬는데.

하루는 월 잔뜩 해 가져왔어요.

“뭐요?”

이러니까

“돼지 다리예요. 이거 잡수시라고 가져 왔죠.”

“웬 돼지 다리를?”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갖다 제사지냈죠, 어제.”

“어떻게, 거진 뭐 아무것도 갖다 마치는 게 아니래든.”

“예. 근데 뭐 인제 내가 마지막에 한 거니까. 아니 저거 한 군데 마무리를 내가 못 지었는데 내가 저걸 못 지을 모양이니. 그걸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어디 가느?”

“모르죠, 언제 갈지.”

그래 저 사람 인제 또 헛소릴 하는 구먼 싶었지만.

그래 거 대통령 저기 하는 것두 애길 꺼내는 걸,

“당신 그 입 나물으라구. 제발 그러지 말라구.”

이래가지구 내가 입을 막아 놨어요.

뭐 이랬는데 이 사람이 (기침) [조사자 :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갈 것두 알았군요?] 알았어(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니 그 꿈을, 세 번이나 현몽을 주었는데 두 안 왔다 이거야. 벌 받았다구. 하하. 그래,

“그 개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왔지. 왜, 그럼 참으면 왔겠지.”

난 이제 좋게만 또 얘기를 해서 그런 말을 내가 막을려구만 했구. 그런데 그런 얘기를 떠들었습니다.

그 뒤에 저걸 다 쌓아 놓구 그 짓을 하더니 돼지다리를 하나 갖다 주면서 먹으라구. 그러더니 이걸 안 먹구 내가 버릴 수도 없고. 어때 뭘 저기 할지 모르니까. 그래 그걸 참 다 먹었지.

그러더니 왔는데 얼굴이 그냥 다 까져가지고 왔죠, 이 얼굴이. 뭐에 그냥 저 이렇게 해서 통 짜개졌어, 얼굴이. 그래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 내 치음보고 물를 정도였으니까.

“허 이거 웬일이유. 왜 이랬어?”
이러니까,

“벌 받았어요.”

“왜 그 벌은 왜 밤낮 벌이요, 그래. 아 그 십년씩이나 걸려 잘했다구 벌인가?”

돼지가지고 올라왔다구. 허허.

“거긴 그런 거 하지 말했는데 왜 너 그 저기 했느냐. 이래가지고 냅다 때리는 바람에 넘어졌죠.”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땐 우습죠.

“저 오늘 하직인사 왔어요.”

“아니 그 또 무신 소리여?”

“데려갈라나봐요. 인젠 데려간다는 데요, 뭐.”

“언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인사라도 해 두고 가야죠.”

그러더니,

“그거 한 군데 못 맞춘 거 그 어떻게 맞춰주도록 좀 해 주셔요.”

“아이 그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구 약이나 저기 쓰구 아래 해라구.”

인제 봉투에다가 돈을 한 이만원 넣어서 주니까

“난 이런 거 안 받아요. 이런 거 받으면 혼나요.”

허허. 그래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들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시방 다 커서 저기 하죠. 근데 아들더러는 그 애길 저길 않지. 모르니까. 하난 코흘리개를 메리구 다녔으니까, 여기에두. 그런 애두 시방 크구, 시방 나가서 다 저길 하는데… 학교두 제대로 못 다니구. 뭐 원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이 삼년 씩 아니, 십년씩이나 걸려서 그와 같은 어 참 저길 해 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시방 죄끄만 비석 하나 만들어 놨어요. 꽉아 놨어. 자, 저 놈을 가지고 갈 근력이 이제 없이 됐네, 나도.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죽은 뒤에 내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 가지구 이제. 그 해소 저기 해 가지구 나두 이제 죽네 사네 아래다가. 다들 지금도

더러 나가면

“아이구 원장님, 괜찮으세요?”
이런다구. 다들 죽는 줄 알았거든.
병원에 오래 있었구, 이런데. 어떻게
술술 나아져요. 회복이 돼. 그 인제 얼
굴도 좋아지구. 배쓰 말랐더니 인제
얼굴도 좋아지구.

II. 원주군 지정면

[조사마을 : 지정면(地正面)]

원주시의 북서쪽에 인접하는 면으로
서, 호저면·문막면·양평군과 접하고
있다. 1914년 군면 합할 때 地面向面과
正之安이 합하여 지정면이 되었다.
1973년 면 내의 茂長里가 호저면으로
이관되고 현재에 이른다.

섬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유역의 지
정평야는 기름진 충적지로서 군내 벼
농사의 중심지를 이룬다. 과일·소채
를 중심으로 하는 원예농업도 성하다.
군내에서 양계 2위·양봉 1위·양잠
2위로 축산도 활발하다.

1942년 개통된 중앙선이 면내 판매
역과 간현역을 지난다. 영동고속도로
의 일부도 통과한다.

문화재로는 眞空大師塔碑龜趺 및 龜
首, 興法寺址三層石塔이 보물로 지정
되어 있다.

섬강 유역의 간현(艮峴) 협곡은 절
경으로 유명하다.

[지정면 제보자 1]

간현리 간현역 광장, 심상전, 남·87

세

1990.4.26, 정운채, 송팔성, 이인경,
장대철, 조윤주 조사

간현리 반송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4대째 살아왔다고 한다. 10대
조 이전으로는 정승을 배출한 집안인
데 8대조가 원주 문막면으로 낙향했다
면서, 양반의 후예라는 것에 자부심을
보였다. 어려서 서당에서 經書를 읽었
고, 일제강점기에는 서당을 열어 훈장
을 9년 했다 한다.

간현역 광장의 벤치에서 다른 노인
들과 햇볕을 피다가 조사에 응해주었
다. 깨끗한 옷차림과 안색으로 보아
부유한 듯 했으며, 안노인과 아들 내
외가 함께 살고 있다 했다. 전강해 보
였고 발음이 정확했으며, 이야기에 든
리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한자
어를 자주 섞으면서 유창하고 차분하
게 구연에 임하는 태도였다. 시종 미
소를 떠면서 설화 두 편과 잡가 2편을
구연했다.

제공한 자료 : 설화 1, 2. 잡가 2편

○ 설화

1. 심상전 : 뜨 쓸 출 안 사람(부자
의 셋째 아들)

2. 심상전 : 한양 조(趙)씨 움덕 쌓
은 이야기

[지정면 설화 1]

간현리 간현역 광장, 1990.4.26, 정
운채, 송팔성, 이인경, 장대철, 조윤

주 조사.

심상진, 남·84세.

〈돈 쓸 줄 안 사람〉

내 옛날 얘기 하나만 허께. [조사자 : 예] 옛날에 시골에 한 사람이 사는데, (조사자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성명은 모르고, 부자더래요.

그런데 아들을 삼형제를 두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시골서 부자라고 하는데, 돈 셀 놈이 하나도 없다 이기야. 그래서 큰 아들을 첫날 불러 가주구, 참,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몇천 원을, 그때 돈으로 하면 한 십원만 해도 아마 얼마든지 쓸 수 있었거든. 돈 십원을 주면서,

“너 장에 나가서 이 돈을 써구 오너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 이 사람이 나가니, 집에 뭐 물건은 사 올 껴, 먹는 게 없이 다 있으니까, 사 올 껴 아무 것도 없구. 아 또, 부자니까, 작인(作人)이구 사용(음 음)이구 모두, 만내니 그 사람이가 점심 사 주구, 뭐 술 사 주구 이래니, 뭐 사 먹을 것도 없구. 그래서 한 푼두 못 써구 들어왔다 이거야.

“아, 너 돈 써구 왔느냐?”

“아, 한 푼두 못 써구 왔습니다.”

“아, 그, 점심도 안 사 먹었느냐.”

“아, 점심은 아무 데 사용 만나 사 주구, 아무 데 작인 만나서 술 사 주구. 이래서 한 푼두 못 써구 왔습니다.

지가 뭐 사 올 것두 없구.”

속책으로 ‘너두 돈 생전 못 셀 놈이 구나.’ [일동 웃음]

고 다음날, 두째 아들을 불러서, 또, 가령 십원을 주면서,

“장에 가서 돈을 써구 오너라.”

그 놈 역시 형과 같이 또 그래서 한 푼두 못 써구 왔다 이거야.

고 다음날 세째 아들을 불러서 또 십원을 주면서,

“장에 가서 돈 써구 오너라.”

[조사자 : 예—.] 그 사람도 나가니까 그, 저, 뭐, 참, 작인들 사용들 만내, 점심 사 주구 술 사 주구, 집에 사용 전 없구. 그래 이 사람이 음어먹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자라구 하는 사람이 남의 것만 이렇게 얻어 먹구,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말야. 그래서, 아 술을 사는데, 지여부지간(知與不知間)에 그저 만내는 사람은 불러 들여서 술을 사 주구, 이래서 으朋게 그 십원을 다 써구 왔어.

“너 돈 써구 왔느냐.”

“예, 다 써구 왔습니다.”

“으朋게 썼느냐.”

“아무 데 사용 만내서 점심 사 주구 아무 데 사용 만내서 술 사 주구, 이래 돈 셀 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서 남의 음식만 얻어 먹고, 전, 그냥 온다는 게 뭘 해서, 아 그저, 몇 사람 모두 만내는 대로 불러서 술 사 주구 이래서 다 썼습니다.”

“아 너는 돈을 쓰는구나.”

날마동 십원씩 쥐, 그 세째 아들을.
이 사람이 인제, 날마동 냉기면서 그
렇게 쓰다 보니까 견달이 됐단 말야.
그 기생집이두 가 놀아 보고, 인제 이
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놀다
생각하니까, ‘내가 시골서 그래두 큰
부자라고 하면서, 이거 서울 가서 좀
놀아 봐야지, 시골서만 이리면 되겠
느냐.’

그라곤 서울을, 옛날 돈은 염전이니
까, 말 등에다 몇 바리 싣고, 서너 바
리 싣고 올라갔다. [조사자 : 염전을
요?] 옛날에는 왜 염전 아녀? 그러
니까 그, 가치가 있는 돈이거든. 그래
큰 객주집에다가 갖다 광에다 세 바리
를 척척 꾸려 쌓고선, 거기다 주인을
정하고는 묻는 말이,

“이 장안에 일등기생이 어디 있느
나?”

“아, 이러저러한 데 있습니다.”

아 그 집을 알아가주구 가서, 거기
에, 이튿날 갔단 말야. 가니까 그 장
안에 일류건달들이 모여서, 참 그, 부
어라 먹자 부어라 먹자 이러는 판인데,
시골서 그, 술 먹던 그 식으로다가 청
을 하구 들어가 그 좌석에 들어 앉았
단 말야. [조사자 : 청을 하고요?] 응,
시골서 그러니까 하던 식으로다 하구
서 술좌석을 들어갔다 이거야, 남의
집 좌석을. [조사자 : 예.]

들어가니까, 서울 그 일류, 게 찬,
건달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촌놈이란
말야. 아, 그, 식이 틀리거든. 아, 그
러니까, 아, ‘이 으면 촌놈이 남의 술

좌석에 이렇게, 아 들어왔느냐?’ 구.
아, (뺨을 치는 시늉을 하며) 이뺨 치
구 저뺨 치구 하더니, 아 전장, 옷은
다 찢구(찢는 시늉을 하며), 뭐, 탕건
갓 다 부수구, 아, 이, 실천 두들겨
맞곤 그렇게 왔잖아.

객주집에 주인집에 와 가주구는, 돈,
그때 돈, 십원만 내 놓으면 뭐, 아 그
저 그 의복이구 그 갓당이구, 아주 아
주 일류로 또 싹 해 입구는, 아, 이튿
날 거기를 또 갔어. 또 가니, 그 식밖
에 모른단 말야, 시골서 놀면 그 식밖
에 몰라. 또 가니, 의, 의복을 쳐 찢
고, 이뺨 저뺨 두드려 맞고 쫓겨 왔단
말야.

또 십원을 내 주구시, 또 그와 같이
또 일류로, 의복이며 갓당이며 해 오
라고 했단 말이야. 해 써고선, 사흘째
되든 날 또 갔단 말야. 그 좌석을 또
갔어. 또 가니까 이 사람네가 으떻게
거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이눔이 사흘
째 이렇게 의복을 전부 잘 해 입고 오
는 걸 보니까, 돈은 많은 놈이다, 촌
놈이래두. 그리니 우니 그럴 거 없이
그 사람을 잘 물아서, 우리 술을 음어
먹는 게 낫겠다.’ 이랬거든. 사흘째 되
든 날은 잘 대접을 해서 저희가 술을
사 주었단 말야.

그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좋아서,
그 이튿날부터는 그눔이 녹아 사는 거
지. 서울 뭐, 일류 일류 기생집에 가
서 사는 거지 뭐. 서울 일류 건달놈이
술을 살 리가 있어? 촌놈이 자꾸 사
지, 날마다.

그러다 보니 세 바리 싣고 간 돈을 몇 달 안 되어서 다 썼다 이거야. 그래 이제, 그 사람네하고 아주 속친이 됐고, 이제. 돈을 그렇게 잘 써니까 기생하고도 가차와쳤고. 그래, 돈이 떨어지니까 집으로 편질 했단 말야. ‘돈 몇 바리 보내라.’

그래 또 서너 바리 보냈다구. 그래 그렇게 놀다 보니, 한 일년 놀다 보니 그 둘의 그, 또 세 바리 온 거 다 끝 어졌을 거 아냐? [조사자 : 그렇지요.] 그제서는 또 편질 했더니, 즈이 아버지 편지를 담장을 해기틀, 돈은 안 보내고, ‘야 이놈아. 너두 생각이 있지, 아 땅 다 팔아서 돈을 두 측이나 올려 보냈는데, 너 돈만 자꾸 갖다 써기만 하문 어떡하니, 이말이야. 내려 오너라, 응.’

인제 아, 그러니 뭐, 도리가 없잖어, 돈 없으니 갈 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좌석에 가서,

“내가 인제 돈을 다 썼어. 하니까 내일은 집이를 가야 할 텐데, 집에 갈 여비도 없구나.”

이랬단 말이여, 응. [조사자 : 전달 들한해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네 가,

“아, 여기야 나가 걱정할 거 있니. 우리가 다 뭘 해 줄 테니 걱정 말아라. 그러구 인제, 간다니 오늘은 우리 술로 먹어라.”

그래구 그 사람덜이 사서 종일 잘 놀구. 기생한테 두 작별인사하구 말이야. 이 사람네가 모두 모아주는 것이 그래

두 폐 많이 모아주더란 말야, 내려갈 노자들.

그래 그 노자를 넣구서, 남대문을, 집을 갈라구 떡 나서니까, 옛날에 대개 걸어댕기지 않으문 말이나 타고 댕기구. 그렇지 않으문 교군 타구 댕기구. 그건 상동인이나 하는 게구. [조사자 : 상동인이요.] 아, 고관대작 지내는 사람. [조사자 : 교군을 탔다고요.] 말 타구 교군 타구. 교군이란 게 가마란 말야. 그래 걸어서 남대문을 떡 나오니까, 흰 가마, 소교, 소교가 하나 들어오는데, 바람에 문이 펼떡 날리는데 보니까, 그 안에 여화미인 처녀가 들어 앉았다 이거야. [조사자 : 여화미인이요?] 꽃같은 미인, 여화미인(如花美人). [일동 웃음] 그래서 이 사람이 전달의리가 뵈니까, 그만 그, 색욕이 생겼단 말야. 그래 그 가마를 따라서 따라서서 장안에 이 골목 저 골목을 가더니, 한 고라등같은 기와집으로, 속을대문 안으로 쑥 들어가니, 수계망이라는 문자가 있잖아, 탁 쫓던 개가 울타리 쳐다 본다구. 추계망이. [조사자 : 추계망……] 추. 계. 망. 이. 울타리 ‘이’자. [조사자 : 예, 울타리 이자요.] “탁 쫓던 개가 울타리만 쳐다 본다.” [조사자 : 예, 예.] 그러니까 대갓집엔 들어갈 도리두 윤구. 글루 쑥 들어가버렸으니. 다신 볼 수두 없구, 이렇다 이말이야.

그런데 고 앞에 늙은 할미가 팔죽을 해서 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쪼만 오막살이에서. 그래 그 집일 갔단 말야.

가서 수양어미를 정하고, 그 팔죽할미를, 방이 추하고 그러니까, 방이 왜, 그 쪼그만 방이겠지 뭐. 당장 도배지를 사다가, 그 건달들이 보아준 돈이 있으니까. 그, 도배를 새로 해 주구, 호감을 사느라고. 장에 나가서 쌀 좀 사구 남구 몇 바리 사구 그래서, 갖다 쌓아 주었단 말야. 아 그러니 그, 그, 팔죽할미가, 팔죽 팔아서 근근히 지내다가 아, 그, 그런 사람에 있으니 좀 좋겠느냐 이거야. 수영아들은 잘 있었단 말여. (기침)

그래 친근해졌는데,
“이 택이, 이 소실대문이 큰 택이 뉘 택이냐.”

이래니까,
“김판서 백이다.”

“그런데 요전에 글루 소교가 들어갔는데 그 소교 탄 사람이 처녀니, 그게 누구냐?”

“그 김판서의 막내딸인데, 의할머니가 작고해서 그 상가에 가서 의할머니복(服)을 입구 온 게다.”

그래면서 하는 말이, 팔죽할미 말이,
“내 딸이 그 몸종으로 가 있다.”

이기야. 됐단 말이여, 아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 딸이 며칠만큼 집에 나오면 수영오빠라구 아주 친절히 불틀라구 이러구. 아, 오빠가 그렇게 저렇게 두 해 졌다구, 이렇게 쌈두사 오고 낭구도 사 오구 이랬다구 하니까, 아 그, 가까워질 게 아냐? 담박, 또. (기침)

한낱은

“나 그 집에 좀 들어가게 해 다우.”
그랬단 말야.

“거기 어려운데요. 밤만 되문 대문은 닫고 가죽은 그, 대감, 노대감 기신 사람으로 통牒 할네다.”

그래서 그게 썩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 고개 가웃가웃 하더니,

“내 묘걸 하나 뭘 해서, 뭘 할 테니
가만 있어라.”

그래구, 들어가서 뭐라구 했노 하니,

“오늘 저녁이 제 애비 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제를 보구서 제사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이러구는 대문 밖으로 통牒 해 나왔단 말야. 그래서 제사 지내고 을 거는 알고 있잖아, 대감이?

그래 뭐 제사를, 뭐 헛제사지, 실지 제가 아니니까. 이식하니 인제, 제 지내고 음복하고 이래 시간이 지낸 뒤에, ‘오빠, 내, 나를 따르시우.’ 이랬단 말야. 그래, 그 사랑 앞에, 불을 안 끄고 있길 거 아니, 사람이 을 테니까? 대감은 쉬었겠지 뭐, 주무셨겠지. 그런데 그 사랑 앞에 가서, 요, 애가 말야,

“아, 아이고머니. 무섭다.”

그러면서 아, 영창문을 그저, 금방, 화 열고 화 들어가니까, 촛불이 꺼졌단 말여. 그런 뒤에 그리고, 앞문을 차고서 신은 짐이 들고, 수영오빠를 먼저 내보냈단 말야.

아, 그러니까 대감이 차다가 깜짝 놀라 깨면서,

“웬 요망을 이렇게 뜨느냐.”

걱정을 하거든.

“아, 그런 게 아니라, 사랑문 앞에 오니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아, 그, 그, 그 자기집이 드나드는 종이니까 그거 양해해야지 어떡하겠어? 그거 그,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이라고 인정할 수 없거든. ‘어서 참, 무서워서 그렸나 보다.’ 그러니까 감쪽같이 수영오빠를 들여 보냈단 말야.

들어가서 제 방에 가 있는데, 그래,

“그 쳐녀 어느 방을 써구 있느냐?”

“저 연못 복판에 별당에 있십니다.”

“나, 거기 좀 들어가게 해 다오.”

그 배틀 어떻게 요리를 아니까, 어떻게 해서 전너쳤단 말야.

아, 이눔이 마루 밑에 가서 엎드려 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이식하더니 중눔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더니, [조사자 : 중눔이요?] 그 웅, 담을 넘어서 들어오더니, 아, 그, 대감의 막내딸하고 아주 음역(?)하게 뛰라고 그래는데, 가만히 마루 밑에서 들으니까,

“너, 그래, 혼인날이 아무날이라는 데 글루루 가겠느냐.”

말야. 중이 묻는단 말야. 아, 이래,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거 내, 그 신랑놈을 치울 테니, 넌 나하고 살자.”

말야.

“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잔칫날은 아니까, 그 기집애더러, 수영누동생이지, 와서

“날 어떻게 나가게 해 다우.”

한단 말야.

이것이 또 갸웃갸웃 하더니, 불을 써는데, 후원에 사당집이 따로 있는데, 덤불낭구를 한 웅큼 가져가더니 사당집이다 불을 싸 놨어. [조사자 : 불을 질렀어요?] 웅. 그러구 제 방에서 자는 척 하고 있단 말야. 이러니, 불이 났으니 뒷, 내당 사방, 큰대문 작은대문 다 열어 놓고, (조사자를 둘러보며) 동네사람들이 죄 흘러 들어왔을 거 아니?

그 동안에 빠져 나왔어. [웃음] 나와서 이 사람이 그 팔죽 할미한테 가서 또 있으면서, 비수를 하나 지었단 말야. 그냥 잘 들게 해서 몸에다 품구. 그 잔칫날을 기두리는데.

어, 잔칫날이 되니까 서울도 잔칫날은 문 다 열어제치고 무상출입할 게 아니? 으, 그 틈에 헤집고서 그 사람이 거게 들어가서 자기 누동생 방에 들어 있다가, 신방은 바로 그 연못 복판에 거기, 뭘 하니까, 그래 차려놨지. 또 그 마루 밑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눔이 으레 올 게 아니? 오는데, 가죽가방을 하나 해서 가지구 왔어 중눔이. 게, 옛날에, 그 열두 살 열세 살, 요런 걸 대개 장갈들이니까. 신랑이 대개 어리구 색시는 크구 그렇거든. 그러니 으레 나도 거다 얘기해겠구먼. 안에서 십년 위 오년 위 보통이란 말야. 그래, 신랑은 적으니까, 열네댓 살밖에 안 되니까, 가죽가방에다 까꾸루 집어넣어서 벽에

걸어 놓으니까, 고개 짹 소리나 해?
아 그래놓고 농탕거린단 말야, 둘이,
중놈하고. 그런데, 마침 그 문짝으로
머릴 두구서, 아마, 장난을 했던 모양
이야.

문을 열면서 그저, 비수루다 냅다
질르니까, 두 놈이 다 죽었을꺼 아마.
아, 중놈만 죽었다. 아, 그 중놈이 꼬,
꼭대기에 있으니까, [조사자: 예, 위
에 있으니까.] 죽었을꺼 아냐. 그러
고는 가죽가방만 둘러 베고는, 그러니
까 그 신랑집이 어딘고꺼정 죄 알아봤
어. 신랑집도 조판서집인데, 외동, 외
아들이여, 또. 그래, 그 집에를 데고,
밤중에 가서는 대문을 걸어 차고 야단
을 치니까, 곤히들 잔치준비 하고 이
래다가 곤히들 자다가, 대문을 걷어,
걷어 차고 야단을 치니까, 웬일인지
몰라 쫓아와 대문을 열 게 아녀?

대문을 여니까 가죽가방만 韜 집어
들어, 면지구선 내뺐단 말야. 아 중놈
이 그, 이상하니까, 가죽가방을 보니
까 그 속에 자기 주인도련님이더라고,
아, 갖다 안에다가 마치니까, 죽던 안
했지, 그러니까. 까, 까꾸루 느서 소
리도 못 했지마는, 가죽가방이니까,
죽던 않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
이냐 하니까, 사정 얘길 다, 본인이
해. 그러니까 그쪽 김판서집에 그건
말할 것도 없구. 그 중놈을 어떻게 치
우구, 의절이 됐을 테지.

그리구 있는데, 아, 이 조판서가 그
은혜를 갚아야겠는데, 아, 어떤 사람
이 구해 줬는지 알아얘지. 그래서 사

대문에다 광글 불이기률, 얘기 잘 하
는 사람이면, 약주술 석 잔에 돈 삼백
냥 준다고 방을 붙였단 말야. 아 그러
니, 들어가서 암만 얘길 하니, 술 석
잔은 읊어 넉지만 돈 삼백 냥 주느냐
말이야. 자기, 그, 자기 그 사람을 찾
을려는, 얘길 들을려구 하는 전데.

그래, 그, 인제, 이 전달은 거기 장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인제,
그 전달놈과 추축(?)을 가끔 했단 말
야. 하루는 그 전달놈더리

“아, 그 조판서 대감이 얘기 잘 하
는 사람은 약주술 석 잔에 돈 삼백 냥
상금을 준다는데, 내가 가면 담박 탄
다.”

이라거든. 그 사람은 별씨 속찍으로
자길 찾을려는 걸 알아.

‘아, 너보달 날구 기는 사람이 가
얘길 해두 뜻 다는데 니가 타?’

(조사자를 향하여) 인제 농담으로...

(미소)

“나는 가문 꼭 탄다.”

“그래 못 타면 으떡 할 때냐?”

“아 내가 한집이가 내지. 타문 으떡
할 때냐?”

“우리가 한집이가 내지.”

이게 이렇게 됐단 말야. 그래 기생
년도 다 들은 게지.

아, 그래, 한날 갔어. 찾아갔어, 또.
조판서댁엔 찾아갔다. 본인이 찾아가
서,

“대감, 얘기, 속담 잘 해는 사랩이
면 약주술 석 잔에 돈 삼백 냥 주신다
구 해셨죠?”

‘그랬다’구.

“그래, 얘기는 어떤 얘기가 좋은 것니까? 옛날 얘기가 좋은데니까, 자기가 겪은 얘기가 좋습니까?” 물었단 말야.

“아. 겪은 얘기가 좋지.”

그 얘길 했단 말야. 자기가 시골서 부자로서 서울 와서 돈 다 썩구, 아갈라구 하다가 그 소교 찾이 따라서 들어간 얘기며, 팔죽할미집에 가서 주인하고 있던 얘기며 고결 소상히 저기하면서,

“그, 내, 가죽가방을, 신랑을 가죽가방에 넣어서 살려 줬는데, 그 점이 어느 집인지?”

이래빠렸단 말야.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하잖어? 아, 대감이, 두손을 덤썩 잡더니(웃으면서),

“자넬 찾을라구 내가 이랜겨. 나, 이거, 부재(父子)도 안 하고 우리, 의동, 의동생 하세.”

그라구는 작은, 참, 안으로 자기 아들을 부르니까, 그동안에 인제, 맷해했으니까 다시 다른 데 장개 들여서 이렇게 사는 처지여. 그래, 아들 머느리를 다 부르더니,

“너, 이 어른 보위하라. 생아자(生我者)도 부모요, 나를 놓은 사람도 부모요, 활아자(活我者)도 부모요, 너를 살려준 사람도 부모여. 그러니까 아버지로 호칭해라.”

그러구선 아들 머느리를 다 상면을 시기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우리 안사람도 상면해야지.”

아, 테리구 들어가서 자기 부인꺼정 상면을 시기구. 아주 친형제처럼 동생 형님 해. 아, 알구 보구. 자기하구 겹상해서, 칙사 대접하던 참, 하는 판인데.

메칠 그렇게 하다 보니, 아 그, 식구생각이 인제, 나서, 집이를 좀 가봐야 하겠거던.

“대감.”

그래두, 대감은, 형님이래 두 대감이 래야지, 형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어? [조사자 : 예.] 자기는 백수(白首)고. 아무것도, 당전 하나 둇 쓰구, 그분은 판서니까, 대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감, 집일 좀 가 봐야 하겠습니다.”

“아냐, 가만 있어. 내가 멜모례면 자네 식구를 서울로 다 이살 시킬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 말어.”

아, 그러더니,

“자네 살 집 가 보세.”

고 이웃에다 발씨 자기 집과 같은 좋은 집 사고, 자기 재산, 그, 토지를 반은 갖다가 발씨 거기 채작에 노나서 놓어놓고, 재산을 반을 다 갈려 주고. 이래구선 식구를 인제, 하인을 보내서 인마루다가 다 데려오는거. 그라구선 친형제처럼 평생을 잘 살았다는거. [조사자 : 그러면 소교를 타고 간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여자야 망그려졌지 뭐. 대갓집에서 그때판에 파거, 충눔하고 뭘, 뭘해 가지고서 뭘했다구 하는데. 그건 말두

안돼. 옛날 관행이 그렇다구. 지금은 뭐, 상관없겠지단…….

[지정면 설화 2]

간현리 간현역 광장, 1990.4.26, 정운채, 송팔성, 이인경, 장대철, 조윤주 조사.

심상전, 남·84세

〈한양 조씨 읍鄙 쓰은 이야기〉

한양 조씨에 조판서라는 분이 있는 데, 아, 조진사·조진사라는 분이 있는데, 시굴 이진사의 마님하고 결혼이 돼서, 참, 결혼날이 돼서, 부자(父子) 갔더래, 아버지는 후행으로 가구. 상객이라구두 하구, 후행이라구두 하구 이래, 헤리구 가는 거니까, 반드시 갔는데, 게 뭐, 진사품 되고 아래니까 과히 어렵진 않구 하시, 절한 처진데, 양가이 다.

전네 그, 조진사는 아들을 삼형젠 두었더래. 그런데 결혼날 인제, 결혼을 가서 인제, 예를 이루구(조사자를 향해) 신방이란 걸 차리잖아? [조사자: 예, 그렇지요.] 아, 신방을 차렸는데, 첫날밤에 애를 낳더라 이거야. [조사자: 아이고, 맙소사.] 그러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그냥, 내빠리 구울께 아녀? [조사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은 마음이 얼마나 착하구 어질던지, 그걸 자기가 이불의 솜을 뜯구 빼 가지구, 다, 모두 천결을 씌기구, 아래구는, [조사자: 예, 청결이요?] 아, 그 뭐, 앤 낳았으니까 더러

운 피, 이런 걸 다, 청결을 하구, 첫국, 첫국밥은 미역국에 흰 이밥을 먹여야 되잖아, 산모를. [조사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개 신랑은 밤참을 주거든. 밤참을 주는 뻬이란 말야. 그러니까 하인을 불러가주구, ‘나는 밤참을 흰 이밥에 미역국이어야 먹는다’구 그랬어. 그 산모 뻬이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신, 신랑이 그렇게 청하니까, 미역국에 흰 이밥을 밤참을 해 왔을 께 아녀? 그런데 신방이니까 문은 안 열구, 그, 그리 들여 보내지. 그래, 받아서, 먹으라 그런단 말여. 하여간 처음 만난 신랑이랑데 두 자기 한테 그렇게 후의를 써는 데, 안 먹을 도리가 있나? 먹었던 말여. 게 먹으니까 산모도 팬참을 게 아녀? 그래 구는 갈 적에 보니까 아마, 그, 처갓집, 규수집 모자일 가능데 보니까, 다리가 하나 있었어. 그 갓난아이가 마침 머섬아이야. 숨에다 싸서, (동작을 해 보이며) 때가 가히 춥던 않은 때던 게지. 숨에다 싸서, 밤에, 신랑이 살며시 가서, 나가서 다리 밑에다 갖다, 노여 놨단 말야. 그래구선 사랑에 나가서, 자기 아버님더러,

“지금 떠나야겠습니다.”

우째 그런고 하니, 과거날이 매월 안 남았던 모냥이야.

“과거준비를 뭐, 덜한 게 있어서, 자가 가서 과거준비를 해야겠어서 저금 떠나야겠습니다.”

아, 그러니, 아버지두 그, 사실은, 과거날은 가차워왔는데, 그렇다니까,

부랴부랴 밤에 며났단 말야. 그건 인제, 그거, 그 아일 살구기 위해서여. 게, 가다가 아웃소리도 안 나지마는, 자기가 한 일이니까,

“아, 이, 다리 밑에서 뭔 인기척이 있으니,”

하인더러 ‘내려가 봐라.’ 그래. 그래, 죄 가마를 놓고서 내려가 보니까, 솜에 쌈 아이가 있는데, 아, 살아있는 아이란 말여. 아 그렇다구 인제, 와서 애걸 할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불쌍하니, 가 떠려 오너라.”

그래 떠려왔는 게 아녀?

“천상, 아기는 여자라야 하니까, 내 형(內行) 가마에 갖다 주어라.”

즈이 어머니 도로 갖다 주는 거지. [조사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왔단 말여. 그래, 그, 그 하인들이 수십 명이 다 본 게란 말여, 다리 밑에서 온 어온 걸.

응, 그래, 집에 와서두 인제, 다리 밑에서 쫓어 왔다고 하고 그려구. 다 알구 그런데, 얘를 자기가 인제, 키우는데, 그 이제 뭐, 젖두 뼈이구 이랬겠지 뭐. [일동 웃음]

그래서 키워 가지고는 글방에 가게 되니까, 글을 가르치는데, 그 다음으로 두 아들을 또 형제를 낳아서, 아들이 삼형제가 됐다는거. 글방 애덜이, 이게, 열, 열, 열 너더댓 살 됐던 게지, 그러니까. 아 그 동접 애덜이, 동무애들이 저 놈은 다리 밑에서 올어온 놈이라구 자꾸 그러네. 아 그래니, 그게

자꾸, 그 그,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기야, 저의 집에선 물로구 컸는데.

한날은 칼을 들고 명석을 깎구 즈이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나를 다리 밑에서 읊어 왔다구 동무애들이 자꾸 그래니, 사실을 가르쳐 주시오. 만약에 안 가르쳐 주신다면 이 칼루 지가 죽습니다.”

안 가르쳐 줄 도리 있어? 그래,

“사실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 뭐, 애비가 누귀라는 건 말할 순 없고,

“그래면 난 아버질 찾아 가야 하겠어. 나 웃이나 깨끗이 빨아주시오.”

그래, 어, 깨끗이 웃을 빨아 주고. 약간의 입을 제 웃 다 싸서 주고. 아, 가겠다니 안 가게,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비 얼마 준비해서 주고 이태서, 췄단 말야. 주었더니, 이 아이가 어딜 갔노 하니, 저 서해마다 어디 가가주꾼, 섬 중엘, 섬 중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서 중이 됐단 말야. 중이 돼서 불도를 닦아서 도통이 됐어. 그러니까 천기를 본단 말야, 도통이 되니까.

그런데, 조판서, 참, 조진사 그 분이,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지. 생아버지는 아니란대 두 아버지로 알고 있는 분이, 위중하게 돼서 아무날은 죽겠단 말야. 그러니까 찾아 왔어, 다시. 찾아 왔어. 그게, 몇십 년만이지. 찾아 오니 다, 반가이 대접하고 이래는데, 결국 그 조진사도 반갑게 개를, 그 사람을 대접하고 이래는데. 헌데 하사

람이 떨하니까 그 작은 아들더러

“나 죽은 뒤에란도 매사를 저, 형한
테 다, 쫓아서 하라. 하자는 대로 해
라.”

이렇게 유언을 허구 작고했던 말야.
그래 죽은 뒤에, ‘산진은 내가 좋은 자
릴 봐 둔 데가 있으니까’ [조사자 : 산
진이요?] 물을 자리, 산소 셀 자리.
[조사자 : 예, 예.] ‘상여를 인천 바다
쪽으로 가자’ 그래. 인천 바다 쪽으로
인제, 상여를 헤 나갔는데, 배를 갖다
미리 다, 춘별 해 놓구 있어. 그래,
배에다 상당 선구 인제 이래구는, 어
하다가, 자기만 올라가운 동상들 둘은
돛 올려오게 하군, 빌 내지. 그래 이
엔 동생들은 뭐 이찌, 뵐 찾아, 쫓아
갈 수도 없구, 혼자 가지구 갔단 말여.
혼자 가지구 가서 절 앞에다가 대궐
하나 봐 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인
제, 산소를 잘 써구 그 절에 중멸 기
구로다가 산소를 그렇게 잘 써구, 석
물도 굉장히 해 놓구 이랬는데, 뒤에
다가 ‘십대손이 성묘’라고 아주 썼어.
십대손이래야 성묘를, 그 산소, 성묘
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삼백 년 이
후래야 할 수 있다.

근데 그 담에 또 그 어머니가 작고
했단 말야. 그래 천기를 보니까, 다,
아니까, 또 왔단 말야. 또 왔는데, 동
생들이 이번에는 꼭 으딱하던지 쫓아
간다구, 아주, 빌렀단 말야. 그러니까
그제서는 형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동생들을 다 데리고 잘
데니 그저 염려말구 뭐 해라. 다 하라

는대로 해라.”

이래구 인제, 물론 인천 나다 가으
로 또 상여를 나갔을 게 아니? 나가
서 배에다 다 신구, 동생들이 먼저 올
라갈라구 하니까, (웃으면서) 아, 이
번에는 그거, 동생들 다 데리구 잘 테
니까 [일동 웃음] 염려말라구. 안심을
시겨 놓구는, 아, 야중에 또 고만, 혼
자 그냥, 가지구 갔단 말야. 그래서
장사를 지내구선 비에다가 아주 ‘십대
손이 성묘’라고 해 놨단 말이야. [조
사자 : 어머니 것두요?] 응, 어머니.
그냥 합장을 하구선, 그리구 그 사람
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한참 종
단했다가 이어지) 생불이 된 게지 뭐,
그냥.

그런 후에 그 십대손이 과거를 해
가지구 대국 사신을 가게 됐는데, 대
국 사신을 가면, 상사 부사가 있어,
응. 그리구 그 아래, 으, 데리고 가는
인솔자가 또 십여 명이 있구. [조사
자 : 그렇지요.]

그렇게 대를 타구 대국을 가는데,
아 풍랑을 만나서 배가 떠나려가설라
무네, 어느 소 가이 가서 불는데, 인
가도 없구. 이런 데 가서 불었던 말야.
그러니, 그가 아, 이거 요,

“어디 인가가 있나 가 보아라.”

하인덜더리 그랬단 말야. 아, 하인
덜이 참, 으떻게 쪼꼬만 산, 나뭇길처
럼 있는 걸루 찾아가 보니까, 그 짹에
돌아가 보니까, 절만 큰 게 하나 있구,
인가는 없어.

“여기 절밖에 없습니다.”

“아, 절이래 두, 육지에 닿았으니, 풍랑에 고통을 받다가, 그 절에 가서 쉴 수 밖에 없다.”

이래구 찾아 들어갔단 말야, 일행이 내려서. 배는 불잡아 매구. 찾아들어 가 보니까 그 절 옆에 큰, 산소, 그 잘 씨구 셔물 잘 해 놓은 산소가 있거든. 아, 가보니까 자기 십대조 산소야. 그런데, 그 비서에다 아주 십대손이 성묘라고 아주 새겼거든. 그래,

“이, 시, 십대 전에 그, 이, 장사 갖다 지내구 이젠, 이 중님은 어,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 이 방문을 당회 열어야 열려지길 않습니다.”

이래거든. 그런데 그 분이 가 아니까, 열려지더래. 열려지는데 보니까, 가만히 고대로(동작을 해 보이면서) 요렇게 앉았는데, 밖에 나와서 가, 이렇게 만지니까 꽉 쌍 재가 되더래.

그래군 인제, 다시, 거기서, 쉬어가 지구, 대국 사신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조진사의 자제, 그 그가 나중에 판서꺼정 된 인제, 그가 얼마나 후덕한 이난 말여. 자기 부인 하나 그 때 그, 배척을 하면, 그 집은 아주 망하는 게구, 이진사집은, 망하는 게구. 자기는 또 좋을 게 뭐 있겠어. 한데, 그렇게 후의를 써 가지구, 아무 차가 없이 그, 잘 지냈기 때문에, 그 음덕으로다, 한양 조씨가, 착조어한양하구, 뿌래기는 한양에다 붙이구. [조사자 :

예, 예.] 뭐, 감론엔 계룡산 도읍이 된다구 하는데, 지금은 호호창창한 애긴데, 몰라요. 개화어계룡허구, 계룡산 도읍에 가서 꽃이 피구. [조사자 : 예.] 계룡허구, 결실어가야라, 가야산 도읍이 또 있대, 감론에 가야산 도읍 때에 결실을 한다. 한양 조씨네가. 그렇게, 그 음덕으로다가 그렇게 내려 잘된다는 게야. [일동 : 예. (웃음)]

그래서, 그 한 분의 음덕으로다 그렇게, 대대이 사뭇 잘된다, 이 말이야.

III. 원주군 문막면

[조사마을 : 문막면(文幕面)]

원주군의 서쪽 끝에 위치하며, 동쪽은 흥업면, 서쪽은 여주군 북내면·강천면, 남쪽은 부론면·귀래면, 북쪽은 지정면과 접하고 있다. 면소재지는 문막리이다.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蟾江)이 면의 중앙부를 관류하며 기름진 충적평야를 이루어 강원도 내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를 이룬다. 특히 문막 인터체인지지를 통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도내 여러 지역과 연결되며 농업은 물론 공업도 발달하였다. 원주군 내에서는 가장 큰 면에 해당하며, 머지 않아 읍(邑)으로 승격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조사자인 문막리는 면소재지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변화한 마을이었으며, 후용리는 평범한 농촌 마을로서 대체로 말끔하게 정비된 부촌이었다.

[문막면 제보자 1]

문막리, 김성현, 남·72세

1990. 4. 26, 신동흔·이주영·정한기·최인성·김학균 조사

본래 함경북도 경성 출신으로 6·25를 거치며 남하하여 원주에 살고 있는 분이다. 전장한 체구에 커다란 음성을 가지고 있어 이야기관에서 두드러진 행세를 하였다. 시국에 관한 관심도 대단하여 세상 돌아가는 일을 비판적으로 따져 말하곤 하였다. 이야기는 큰 목소리로 시원스레 구연하였는데, 다소 조리가 끊지 않는 부분도 거칠없이 이야기해 나갔다. 치악산 유래, 전등산 내력 등의 전설과 대감 골린 사람, 발해성 구령이 이야기, 일본 밀정 다스린 이인 머슴 등의 이야기를 구연했는데, 그 중 치악산 유래담은 타지방 출신 사람에 의해 지역전설이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에 경리하였다.

제공한 자료 : 설화 1

[문막면 제보자 2]

후용리 둔뱀이, 안상희, 남·84세

1990. 4. 27, 신동흔·최인성 조사

본래 횡성군 안흥면 출신으로 문막면에 정착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관(地官) 생활을 오래 하신 분으로서, 한학에도 상당한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 이야기를 부탁하니 곧바로 고담을 시작하였는데, 긴 이야기를 조리정연하게 전개하는 훌륭한 능

력을 보여주었다. 명풍수 등 인물의 행적에 관한 설화를 많이 구연하였는데, 총 10편의 이야기를 장장 4시간 동안 구연할 정도로 표현력이 풍부하였다. 자료가 야담 성향이 강한 것 같아 그 출처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귀가 어두워서 의사 소통이 잘 되질 않았다. 훌륭한 이야기 솜씨에도 불구하고 연로하고 건강이 나빠서 또렷하게 발음하지 못하였으며, 때로는 숨이 차서 문장을 정확히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공한 자료 : 설화 2, 3

○ 설 화

1. 김성현 : 치악산의 유래

2. 안상희 : 흥관서 며느리와 간부를 칭찬한 김어사

3. 안상희 : 도끼경승 원두표

[문막면 설화 1]

문막리, 1990. 4. 26, 신동흔·이주영·정한기·최인성·김학균 조사

김성현, 남·72세

<치악산 유래>

포수가 사냥을 적 나갔는데, [예] 이, 사냥을 나가 가지고 양지 바른, 양지 바른 쪽으로 무순 짐승 자국이나 있는가 하고 조사맹기다 보니까 까투리가, 까투리가 날지 못하고 그냥 거져 날아떨어지고 날아 떨어지고 하며 말여 이래 경신이 아니란 말여, 포수가 가만히 보니까.

‘자 이상하다.’

그래 그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구렁이란 놈이 놀 뜨려 가지고, 그 까투리가 말여 기운을 못 쓰고 날다 떨어지고 날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었던 말이여. 그래 이제 이 포수가 말이여, 그 구랭일 총으로 쐈어. 구랭일 총으로 쏘이 구랭이는 죽었고 까투리는 그때 이제 후두둑하고 날아 달아나 버렸네요. 그 래 이 포수가 그 뭐, 뱀이 있지. 요새 뱀 많이 먹지만 옛날엔 뱀 먹는단 얘기가 없었던 말여.

그냥 죽여 버리고, 그냥 사냥을 들아다니다 보니까, 일락서산하고 해는 저물었고, 그런데 갈 길을 잃었어, 산 중에서. 갈 길을 잃어 가지고 헤매다가, 그 어른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맸으니까 여러 시간 걸렸을 게 아니? 점점 깜깜해지고 갈 길이 아득한데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말여, 앉아서 쉬며 담배를 피워본다고 담배를 이제 턱 꺼내서 말여, 옛날에 야 말아초(?) 아녀? 말아가지구 불을 달라고 하다가, 불을 달라고 하는 차제에 건너편을 보니까 깜깜한 밤인데 말여, 숲속에서 불이 환하게 말여 비춰 나온단 말여.

‘아 저기 비록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가?’ 해 가지고 찾아갔단 말이여.

찾아가니, 자그만한 오두막이 있는데, 포수가 주인 찾으니까 한참 있다가 말여 한 노파가 말여.

“주인은 나뿐인디, 사냥길에 와서 말여 날이 저물어 찾아온 모양인디,

우리집은 먹을 것도 없고 자실 것도, 요기 할 것도 없고 한다 어떻게 할라는 가”고 말여.

그러니 주인이 모시자면 말여 걱정이 될 거 아니, 먹을 것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러니 워 밤이 깜깜한데 말여 길을 찾지 못하니께 인제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갔네. 들어가니까, 방에다 떡 정중히 모시고 이 노파가 말이여, 노파가 이리 돌아서고 저리 돌아서고, 그러니까 와서 몇마디 얘길 하다가 돌아서고 하는데 보니까 치마 밑으로 말여, 치마가 할 머니 몸을 가리고 있는데 치마 끝으로 뱀꼬리가 들여다 뵈인단 말여, 뱀의 꼬리. 그러니 이 포수가 섬찟한 생각이 들어가. 낮에 그 까투리 잡아먹자는 그 구랭이를 총으로 쐈는데, 그 뱀이 사람인데 말여, 사람 몸뚱이에서 뱀꼬리가 뵈오니께 말여 그 섬찟한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

‘아차 이상하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긴장감이 들어 가지고 조심조심하고 있다가,

‘내 여기서 도망쳐야 살지, 밤에 여기서 자다가는 큰일나겠다.’

그래 가지고 잠이 든 것처럼 하고 드려누웠다가 말이여, 노파는 부엌칸에 있구. 이 포수는 그 우에 방에 자다가 말이여, 문을 열고 나가자 하는데 아두이(뒤)서 말이여, 문을 열고 불과 몇 발자국 나가니께 마, 아 이상한, 이상한 움직임 소리가 나더니 들여다보니까 말여, 뱀이 아구를 딱 벌리고 달려

듣단 말이여. 이제 이는 낮에 죽은 구령이 솟님이야. 솟님이네, 그게 자기, 맞아, 낮에 죽은 구령인 암탉이고 이놈이 솟님이네, 그 달하자면 자기 마누라란 말이야. 자기 쌓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원수를 갚자고 조화를 부려 가지고서리 이게, 포수를 걸을 잊고 가게 못하고 이렇게 유인했던 말이여. 아 끔짝 못하고 죽었던 말여. 그래 돌아서서 하는 얘기, 포수가 하는 얘기가,

“이, 미물의 짐승이, 짐승이 말이여, 인간을, 동물의 영장을 이렇게 해치자는 법이 어디 있나? 포수는 말이여, 포수라는 거는 어떤 짐승이구 만나면 잡는 게 우리 포수의 말이여 용맹인데, 감히 말여 미물이 사람을 해치자고, 만물의 영장을 해치자고 달려드는 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설득작업을 했어. 설득작업을 하니까,

“아 그러면은…” 이 구령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엇을 가서 해친다고 하든지 산령(?)이 내려줘야 먹는다.” 그래야,

“낮에 평두, 평두 그 포수가 아니면 먹었겠지만, 산령이 벌써 안 내 주었기 때문에 포수가 닥다들어가지고 그 평이 살아갔다. 그러니까 산령이 말여, 지시가 있노라면 우리 먹느라고 지시가 있구, 내가 인간을 말이여, 자기를 해칠 명령이 내린다면 반드시 산에서 무슨 응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여.

“그리면 어떤 응대가 있느냐?”

“새벽에 이 뒷산에서 북소리가 세마디만 나던 당신은 살아가는 사람이다.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라”구.

그러니께 도망치지 못하고 다시 돌아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유하게 되는데,

“그리니까 새벽에 이제 자정이 지나 가지구, 삼경이 지나가지고 고 달이(그 다음에) 말여, 새날이다 보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너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한테 죽어야 된다”구.

그래 가지고 악속하구 들어가서 아그 딱 앉았는데, 열두 시나 한 시가 되니까 말이여, 뒷산에서 말이여, 북치는 소리 세 마디가 났어요. 북치는 소리 말여. 세번 나가지고 그 포수는 살게 되었을 거 아니여?

그래 이 포수가 하두 신통해서 그 뒷산에 올라가보니까 평이가 말여, 평이, 평이, 바위에다 말이야, 자기 머리를 세 번 친 거지. 그 북소리를 말이야, 화(化)허 가지고 말이야, 그 둘 사이에, 뱀이하고 사람 사이에 들겼다 그게여. 그래서 그 낮에 죽게 되었던, 뱀에게 죽게 되었던 평이가 말여, 은혜를 갚느라고 자기 몸을 회생하면서 그 머리를 바위다 부딪쳐 가지고, 그 산령이 말이여, 그 조화로써 북소리로, 북소리를 들겼다 이기야. 그래서 니 이 포수가… 그래서 치악산이 평치(雉)자 아니여? 평치자 하구 새 악(鷹)자, 평두 조류에 들어가니께. 그래서 치악산이라고 했대, 전설이. 치

·악산 전설이 그런 게 있어.

[문막면 설화 2]

후용리 둔派人, 1990. 4. 27., 신동흔,
최인성 조사
안상희, 남·84세

<흉판서 며느리와 간부를 징치한 김 어사>

그래구 [예] 요담에 전설 또 한마틸
내 얘길 해 주겠는데, 그전 옛날 구한
국 우리 한국 참 츠음에, 청풍김씨에
김어사라구 그 암행어사 한 분네가
[예] 그분네가 서울로 과거를 보라 가
다가서 지금으로 말해머는 과천 근방
이나 어디 거기를 떠 가서는 [예] 저
녁에 잘라구, 노독도 심하구 해서 잘
라구, 주박집에 주인을 정하구서 드려
뉘서 문을 떠 이렇게 열어놓구, 이거
뭐 해가 석양판은 됐는데, 우째 냇가
마가 하나 지내오는데 조공꾼이 걸어
가니엔두루 가매문이 벌떡벌떡하는데,
들여다 보니 아주 패페 짚은, 짚은 여
인네가 흰 소복을 하고 들어앉았는데
보니, 얼굴이 아주 살기가 가득해 [아.]

‘저 여자가 저 얼굴이, 짚은 여자가
저렇게 살기가 들어가지구서 저 될 수
가 있나.’

[청취불능]

“말탱이가 있는가?”

“예, 왜 그러십니까?”

“그래 지금 저 냇가마 가는 거는 저
어디루, 저 전너 마실루 가니? 그 뉘
집으로 가니?”

“예 저 근너 저 마실 복판에 저 큰
지와집이 저 집이 흉판서댁입니다. 흉
판서의 저 메누님인데, 그 흉판서 아
드님이 장개가가지구 단 일년두 안 살
다 아드님이 죽어 상부를 하구는 친전
에 가 있다가서 내일 저녁이 소상이라
서 인자 소상 지내리 오는 걸입니다.”

“아 그러면 잘 알었다.”

그런데 가단히 생각해 보니 그 무슨
조건이 있는 기지. 그게 그럴 수가 없
어. 저녁을 먹구서, 이제 저, 먹구는
흉판서 집엔 전너갔단 말여, 혼자서는.

“이리 오너라.”

하니깐두루 하인이 나왔어.

“이 지내가는 과객이 하룻저녁 좀
자구 가겠다구 들어가 여쭈어라.”

그래 들어가 판서더러 인자, 흉판서
더러,

“아, 저 워면 과객이 하룻밤 차구
가겠답니다.”

“아, 들어오라구 해라.”

그래 흉판서는 단지 아들 하나 뒤다
가 장가보낸 것이 일년도 안 가서 아
들이 죽어버리니 고만 수심이 돼서 있
는데, 내일 모례 소생(소상)이 들어오
니깐두루 참 마음이 좋지 못했어 인자.
아 그러나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참
가랄 수는 없구. 인자 서루, 그래,

“저는 시골 아무데 사는데 내가 서
울로 지금 가는 걸인데 노자가 떨어져
서 하룻저녁 자구 가자”구.

“아. 주무시라”구.

그래 이 사람이 가서 막 이리토록(?)
얘길 하구서 놀구 있다가서는

“인제 고만 잡시다.”

계 홍판서는 잠이 들었어 [예] 잠든 뒤, 이 살무시 문을 열구 나가서 집을 돌려보니 깐두루, 그 한 마퀴 돌아보니 저쪽 후원에 불이 반들반들하는데 거긴 워딘가 하구 솔솔 가보니, 아 위천 사람이 담을 월담을 해서 넘어간단 말여. [예]

‘그렇지. 무슨 변이 있구나.’

그 불 있는 데루 그리 향하더라구. 그래 그 길어사 될 사람두 월담을 해 넘어가서 가단히 문틈이 가 들어 보니 아 우연 총작놈이 아주 방에 들어가더니 그 홍판서 더누리가 아주 회회낙락 을 하구 아주 서루 죄통을 하구 있어.

‘아 잘 알었다. 요놈, 내가 지금 가서 과거만 하면 요놈들 원수를 갚아 주겠다. 틀림없이’ 니가 홍판서 아들을 죽였구나.’

그래가지구 나와서 그 소변 보구 들어오는 광계루 와서 인제 자.

식전에 간다구 하니,

“아 여보. 그 과거길이라면서 식전에 어디루 잔단 말이오. 그 조반 식사나 하구 가지.”

“아 그 조반 안 먹어두 좋습니다. 하루저녁 신세 많이 졌습니다.”

“어, 앉어서 조반 자슈.”

그리 그 조반을 맵였어.

그래 그 길루 올려가서, 과거보러 올려가는 길인데, 지금으로 맬하면 아마 남산 밑에 워디 갔던 모양이지.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밤새구 앉어서 쉬는데, 아 그 뒤에서 뛰 부시락 소리가

나서 보니깐두루 아주 꾱께 짧은 소년이, 청나구를 타구서는 초립을 씨구 이랬어, 창옷을 입구. 옛날에 그 창옷이라면 자네들 거 모를걸세. 그 양반은 그 도포같이 한 것이 선비 입는 창옷이 도포보다 식이 조끔 다르지. [예] 그 말을 타구 오다가 또 반석 위에 앉어서 쉬는 분을 보더니

“아이구, 나두 좀 쉬어갈까?”

당나구서 홀쳐 내리더니만, 그 김씨는 이쪽에 앉었는데 저쪽에 가서 저돌멩이에 가서 떠 앉아.

“그래 선생님은 워더루 가십니까?”

“아 내일이 과거라구 해서 과거 보러 가는 길이오.”

“아이 그 잘못 오셨는데요.”

“왜요?”

“오늘이 과거 보는… 오늘이 과거날 인데요.” [아]

“하 그래요? 내일이라구 했는데…”

“아 오늘이 과거날인데, 나두 그 과거장 중에 들어갔다가 오늘 과거한 사람에 내 글까지 외워 가지고 온 걸요.”

“아이 그 뒤라구 돼있습니까?”

“그걸 자가 외울 거니까 들어 보쇼.”

[조사자에게] 그리 글자를 거기다 쓸라면, 저 한자를 모르면 국문으로 써 두 돼요. [네] 운자(韻字)가, 운자는 뵈 산(山), 사이 간(間), 한겨 한(闊) [한가할 한요?], 머티테 환(鬱), 음 들어올 환(遷), 그게 운자란 말여. 그래서 다섯 자지. 다섯 자 맞지? [네] 그래 인제 내, 글을 내 불리줄께. 낙조토홍쾌벽산(落照吐紅掛碧山), 낙조,

토홍, 붉음을 토한다. 이 말여. [예. 토햄 토] 채벽산, 푸른 산에 걸렸어. [네. 채벽산] 낙조가 뭐이가 낙조냐며 는 저녁때 해 지는 게 낙조여. 해지는 게 그걸 낙조라구 그랴. 또 한아척진 백운간(寒鵝尺盡白雲間)이라. 한아(寒鵝), 한아라는 게 그 찰 한(寒)자 까마구 아(鵝)자 그걸 한아 짜라구. [아, 한아] [조사자에게] 그 글만 써야지 그렇게 글자를 거 다 쓸라면… 한아척진, [한아] 한아척진, [한아척진] 척진, 백운간. [백운간요.] 문진행객편 응급(問津行客鞭應急)이요, 문진, 행객, 편응급이요, [편응급] 심사귀승장 불한(尋寺歸僧杖不閑)이라. 방우원중 우대영(放牛園中牛大影)이요, 방우, 원중, 우대영이요, 망부대상첨저환(望夫臺上妾低鬟)이라. 창연고목계남리(蒼煙枯木溪南里), 단발초동농저환(短髮肖童弄笛還) [초송?] 어릴 초(肖)자 아이 동(童) 해서 초동여. [초동.] 초동이 농저환이라, 예 이 단발초동이 농저환이라, 이 쓰느라구 썼지만 이 그 초립팅이가 요 요거까지만(그 앞 句를 지칭함) 일려주구, 요거(마지막 句를 뜻함)는 물론다구 그냥 간 거란 말여. 그래서 이거는 누가 졌느냐면 이건 김어사가 진 거구 요거는 김어사(초립동이를 잘못 말한 것임)가 한기라 [귀신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 귀신이 진 거지.

아 그러나 저러나 이왕에 과거 보리왔으니 서울 구경두 하구 어디 들어가

본다구, 서울 장안에를 떡 들어가니, 아니나 달려, 뭐 내일이 과거일이라구 아주 뭐 장안이 떠들썩하구…

‘야 그거 회한하다. 오늘 그 과거를 보였다더니만 내일이 과거날이래니 야 이건 천상에 이건 신인(神人)이로구나.’ [테이프 뒤집음]

그래 그 과거 장중에를 떡 들어가 보니까 아 운차가 났는데 참 이게 틀림없이 여 외 산(山), 외 산, 사이 간(間), 한거 한(闊), 머리테 환(鬟), 들어올 환(還) 아 이거 틀림없이 이거여.

‘아 이거 나더러 과거하라구 한 기로구나.’

그러구서 이거 여기까지 써 놓구선 이거 짹을 채우느라구 앉어 궁리를 해보니 아 이거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 배 단발초동이 농저환이라, 머리 짜른 더벅머리 아이들이 것대를 회통하고 있다 집으로 들어오는구나.

아 딜여보였더니만은, 그 시관한테 바쳤더니 모두 과결 안 된다는 걸세.

“이게 말여, 귀신이 지어두 이렇게 못 질뻔데, 이게 귀신의 글이지 사람의 글은 아니다. 아니 이거 귀신의 글을 썼으니까 과거 줄 수 있느냐.”

아 그래 상시 관이 앉아서

“아 거 안될 말이지. 거 밑에 한 짹은 인작(人作) 인데, 사람이 지은 글인데, 우째 그것을 과결 안 준단 말이냐. 과거 주소.”

그래서 과결 했어.

그래 내려와 불르는데, 아 청풍에

김아무라구 그 사람에 이름을 떠… 그 나라에, 저, 글을 보구 정승 판서가 영의정이 앉어서 상시관인데, 글을 보니 천하에 문장여. 워디를 뜯어보든지 문장여.

“케, 이거 자네가 지은 글인가?”

“예, 저가 지은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일곱 짹은 귀신의 글이다. 이쪽 한 짹은 인작(人作)여, 하나. 니가 그단금 성의가 있기 땐에 이 과거를 한 거니까. 귀신의 글이거나 말거나 이건 인작이니깐 두루 다…[네] 그래 자네가 문명이 이렇게로 좋으며는 소원이 뛰인가?”

“소원이 별반 있습니까? 저는 소원은 별반 없구…,” 오다가 홍판서 메뉴리 그놈 메뉴리 원수 갚기 위해서 [예] “겨는 그저 시골 하방에 사옵니다만 억조황성이 으mph지 지내는가 그거 돌아다닐면서 시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암행어사감 넉넉하군 그래.”

그 암행어사를 제수했다구. 그래 암행어사를 점지해 가지구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서는 홍판서댁으로 먼저 그 연락을, 과발글을 보냈어. [네]

“오늘, 아무날 저녁에 거 자구간 손님이 지금 가서 과거를 해 가지구서 내려오는데, 하룻밤 자구 가서 신세를 졌다구 판서댁으로 첫 도임을 붙이겠다.”구.

아주 뭐, 아 홍판서가 가단히 보니까, ‘아 거 과객을 하나 채워 보냈는데,

과객이라구 하더니 그게 과거보러 가던 선비였구나. 아 이러나 저러나 내 집에서 도임을 한다니까 아 도임 배설 안 할 수가 없지.’

그 하인들 시켜서,

“그 암행어사가 내 집으로 첫 도임을 한다니까 너희가 도임 배설을 해라.”

그래 음식두 장만하고, 뒤 떡 날이 되니까, ㅇ 그 참 풍악 육각을 갖춰가지구, 아 거 홍판서댁에 떡 들었어. 그 여름 하철이든지 원 춤지 않은 때니까 그랬지.

“오늘 홍판서 밖에 도임을, 첫 도임을 하겠는데, 도임 좌석을 안 대청 마루에다 차려라.”

아 이건 하하, 아 그러나 뒤, 아 자기가 판서지마는 암행어사는 나랏님 대신인데 아 뭐 두말할 수 있어? 그 암대청 마룡에다가 병풍을 치구 참 이 부자리를 깔구, 아 거기다가서는 참 사초를 떠 들여놓구…

“아 판서님 이리 오쇼.”

“아이구 그 어느 존전이라구…”

“아 그 관계 있습니까? 아 그적에 저하구 같이 얘기하구 놀었지 않느냐”구.

“그래 뭐 아투리 내가 지금 아무리 암행어사루 올당정 내가 어딜 가나 별 뭐… 이리 오시라”구.

“아 이 내 앞에 꼭 앉아서 거동을 보쇼.”

앞에 앉았어.

“이 마실(마을)에 워디 그, 학방이

있습니까?”

“아 요 동구밖에 나가면 저 서당방
이 있다”구.

“이리 오너라.”

인저 하인들 보구

“너 이 동구밖에 나가면 저 서재가
있대니, 서당방이 있대니 가서 어린 게
나 저 장성한 게나 학생이라는 거는
하나두 떼놓지 말구 학생이라는 거는
말짱 있는 대로 총동원하구, 그 선생
님 까정 레리구 오너라.” [예]

아 뭐 나가 인저.

“저 학생들 오면 앉을 마당에다가
멍석이라두 하나 깔아주라”구.

그래 마당에다가 멍석을 쭉 깔았어.
아 이 선생이 앉었다가는 원, 아 부지
영문에 넷장 잘못한 일이라곤 없는데
잡으려 왔네. 허, 아 그래 애들

“너네 한놈두 빠지지 말구 쭉 끌리
오너라. 아 지금 암행어사께서 우리를
부르니 한놈이라두 빠지면 벌을 준다
니 빠지지 마라.”

그 애들을 전부 레리구 오니까,

“저, 선생은 저, 멍석 간 데 저기서
애들 레리구 꼭 앉었으라”구.

그 거기서 쭉 앉았어. 학생 하나를
보니깐 두루 나이는 열 한 팔구 세 돼
보이는 아이가, 밤에 봤어두 얼굴이가
비슷한 놈여. [예] 또,

“이리 오너라. 저 마당에 형틀 채려
라.”

이 마당에다 그 뭐 급작시리 우퉁계
뭐 형틀은 차리겠어? 참. 그저 참 증
구난방으로 작대기 쫓아다 참 불들이

매서 형틀을 맨들어놨지.

“너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홍판서데
며느리란 년 그년 가 잡어내어라.”

아 그 홍판서가 옆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 이

‘아, 메누리 그년 가 잡어오라니 이
상하다.’

아 뭐 들어가더니 머리터랭이 끌구
나와.

“아이 저는 아무 죄두 없는디 왜...”

“아 이년이. 잔말 말구 저 형틀에다
울려 달구 제 입에서 항복이 나오도록
쳐라.”

덮어놓고 레리라는거. 그냥 형틀에
다가서 불들어매놓구는 몽둥이루 그
냥...

“네 입에서 항복이 안 나오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이 실고지루 애길 바루
말해라.”

그 날리를 보더니만, 그 학생 하나
고리 땅기던 놈은

‘[청취불능] 우리가 다 죽어유. 다
죽어유.’

아 지가 뭐 참 남자두 못 배기는데
여자가 그 뭐 악형을 당하는데 배겨
나? 아 뭐 몇 차례 물어 갈기더니, 그
저 죽을 때가 돼서,

“그저 잘못했으니 그저 죽여달라.”
구 항복을 혀.

그래 거 김어사가

“그래 거 남편을 죽여서 워떻게 했
느냐?”

“예. 그 후원 연못 속에다 넣었습니
다.” [아]

“음 그래. 동네꾼 불러서 연못 파라.”

아 그래서 온 동네꾼들 부락마다 다 구경을 해서 [청취불동] 아 그 홍판서 외아들 죽은 것만 해두 동네사람들 얹을한데, 아 그렇게 됐다니, 아 동네사람들이 물을 퍼 제치구 아 개울을 인져 들어가 보니까, 아 죽여서 참 거적에다 싸서 거기다 넣었어. [네.] 홍판서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맥히거던. 그담에 그저

“아이구 내 아들 원술 판서(어사의 잘못임)께서 갚어주셨다”구.

하,

“그 총각놈 그 냉기던 거 저놈 가구속해라. 저 위서 앓은 놈 저놈 가서 구속해라.”

거기다 끓어놓구,

“인제는 홍판서님 아들 원수는 내 갚어졌으니까 이건 판서님 주장대로 하시죠. 저놈은 판서님이 죽일라면 죽이고 살릴라면 살리고 [예] 주장대로 하시오.”

“그래 내가 판서로 있을망정 그거 하나 죽여가지구는 내가 무관하지마는, 하마 암행어사께서 어떻게 아셨던지 아시구 이래 나가서서 다 하셨는데 나라에 상소를 올려가지구 나라에서 영(슴)내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인저 나라에다 상소를 하니까,

“그놈 저 판서 손으로 죽여두 좋지 만은, 그놈 서울로 올려보내라”구.

그래 서울로 올려보내라구. 아, 올려보냈지 뭐. 올려보내니까 나라에서

“이런 고약한 놈. 너가 젊은 혈기에 남의 색시를 먼저 통간을 했으면 통간이나 했지 사람을 살인까지 냈으니 너 같은 건 살릴 수 없어. 그러니 너두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는 호환(虎患)... 저 범의 밥으로 집어 너배리구 말았어. [아.]

그래 거 홍판서의 아들 원수를 그레 깊어줘서, 홍판서 아들이 진(지은), 귀신이 진 글이라구. [아, 예.] 그거 자기 원수 깊어줄라구 마음먹구 가는 줄 알구 [네.] 저녁에 가서 야순하구

‘내가 가 과거만 하면 원수를 깊겠디’구 꼭 마음을 먹구 가는 게니

홍판서 이들 귀신이...

[문학면 설화 3]

후용리 들판이, 1990.4.27, 신동흔·최인성 조사.

안상희, 남·84세

〈도끼정승 원두표〉

[조사자 : 원두표씨 얘기하는 어떻습니까? 그 원두표 정승...]

응, 원두표. 원두표 정승은 여기 이 강촌면인데, 그전 여주땅인데, 원두표 장군두 처음에는 집이 가난했었드래요. 집이 가난해시, 원두표가 두 형чен데, 형하고 원두표하고 두 형чен데, 즈이 아버지 친상을 당했는데, 장례를 치뤄야 되겠는데, 지관을 들여 배길라니(?) 둬 있어야지. 그래 그 원두표 그분네 가 괴를 냈어.

‘에 이거 안되겄다.’

서울 어풍(御風) 한테를 쫓아가서,
말을 한 필 읊어가지고 어풍을 찾아
가서

“에, 여주서, 민(閔)집에서 좀 모셔
오랍니다” 하고서는 가서 거짓부郎을
했어.

그때 이씨 말년인가 일제 전 아주 그
요즘 민가덜이라면은 아주 그 뭐 땅땅,
챙챙히 울릴 때거던. 아 그래서 그런
가 하구서 어풍이 대감님덜과 같이 놀
다가서 말을 타구서 내려오니께 말여,
직접 여기 와 가지구서, 강촌면 여길
와 가지구 고개를 하나 넘어오면 그 마
실인데, 죄그만 고개를 하나 넘어오면
그 마실인데 거기 와서 말을 세우구는
아 지관을 벌떡 말위에 있는 거 들어다
가서는 소낭(소나무)에다가 꽁꽁 뒹여
냈어. 뭉여 매놓고는,

“당신은 돈 있는 집이나 양반의 집
만 가서 모이자리를 잡아줘서 양반만
양반 되게 하고 없는 사람의 일은 안
봐주니깐 당신 같은 이는 아주 이런
의만 산중에다 매달어 아주 죽게 해야
되겠다”구.

그래 매달아놓구는 그만 와 빠렸어.
아 이뭐 원두표 같은 기운에 그거 뭐
갖다 불잡아매니, 끔짝두 못허구 불잡
어매서, 뒷짐 결박해서 불잡어매서,
낭구에 불어서...

그리고 집에 내려와서 지 형더러 그
랬어.

“형님, 나무하리 가는 평계에 지겠
아무 데 거기를 가면 그 낭개, 거기 가
서 인기척을 내면 사람 살리라고 소리

를 자를 거요. 그래거든 거길 가서,
이 어느 놈이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고 간곡히 가서 풀어놓고 모시고 와서
대접하쇼.”

아 그래 참 지게를 짊어지구 거길,
고개 올라가서 가 기침을 하며,

“아 나무 뭐 좋은 데가 없나?”

워찌구 혼자 중얼거리니깐, [웃음]

“아 사람 좀 살리시오. 사람 좀 살
리시오.”

아 저쪽편에 가보니 뒷짐 결박해서
낭개다 꼭 불잡아매 놨으니 뭐 꿈쩍을
할 수가 있어?

“아 이게 위짠 일이시오. 이거 보아
하니깐두루 보통 양반도 아니구 서울
양반 같은데 아 우朋계 돼서 여 와서
이렇게 됐소?”

“그런게 아니라 내가 서울 아무 대
감들과 같이 노자니까 우전 짚은 사람이
여주 민집에서 나를 모셔오란다고
말을 가져왔기에 타고 갔더니 여기 와
가지구는 그 잘 가지도 않고 낭개 달
아매고 [청취불능] 력인다구 여기다가
달아매구 갔소.”

“아이 그 어느 사람이 못 할 짓두 했
구만. 아이구 열마나 아프시겠소.”

이래 만지면서,

“저한테 업히세요.” [웃음]

“아이 업히기는 뭘 업혀요. 사지가
성하니 걸어가야지요.”

“아 그럼 가십시오.”

그래 옆이서 부각을 해가지구 집에
모시구 와서 방에다간 일부자리를 깔
고 눕혀놓고 아침 저녁 대접을 잘 했

어.

“그래 당신은 성이 뭐요?”

“난 원주 원가예요.”

“음 그래 보아하니 상주분 같은데 우떻게 누가 상사냐”구.

“우리 아버지가 상사나셨는데 아직 장례를 못 이루었습니다. 산자리를 그 당최 못 잡아 못 이루었습니다.”

“아 그거 안됐군. 그 나도 그 팬한 놈으 지관을 배웠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지만 이왕이면 나를 이렇게 구해준 분네를 아 보은을 해야지, 은혜진 사람을 은혜를 갚아야 될텐데, 대단친 않은 자리지마는 저기 날 따라갑시다. 저기 한 자리 내가 인천에 본 데가 있으니 거기 갑시다.”

그래 거리를 갔더니, 산을 올라갔더니,

“여기 묘자리가 하나 지금 있는데, 당대에 경승을, 경승자린데….”

그 상제가 상을 보니까 경승자리가 듯돼.

“이, 어떤하나.”

그러니까 당대에 경승이 날 자린데
〔청취불능〕

아 그 동생은 덤플 밑에, 뒤를 따라 가서 덤플 밑에 숨어있다. 즈이 형을 보고 당대경승 자린데 못된다고, 당대 경승이 나긴 날텐데 경승자리가 못된다고 한탄을 하고 있었으니까, 덤플 밑에서 속 빠져오면서,

“나도 경승자리가 듯 되우?”〔웃음〕

아 나오는데 보니깐 갖다 달아했던 그놈이거던.〔웃음〕 아 보니까 경승자

리야.

‘할수없구나. 할수없어.’

“자넨 경승자리가 되네.”

그래 거기서 참 황후장상지지루 아 경승 나도록 써줬단 말여.

그래 가지구서는 그 인조반정 때에, 반정 적에 그 광화문을 도꾸루 두드려 마주구서는 광승을 했잖어.

그래 그〔청취불능〕 삼각산 밑이서 살면서 서울루 솟장사를 했어, 그 원 두표가. 솟장을 하다가 하루는 저물어서 못 가구서 천상 마루 밑에 들어가서 밤을 새우는데, 이슥하니깐 두루 뒤동계 둥둥 소리가 나더니마는 아 요령게 한 여남은 표여오더니 앓아서 이야기를 하네.

“자 인저는 되기는 거반 다 됐는데, 광화문을, 광화문을 때려 마수고 그리 들어가야 되겠는데, 광화문을 때려마술 사람이 있나? 누가 광화문만 때려 마쇠주던 경승을 주겠는데….”

아 그 마루 밑이 있다가 그 소리를 들어보니 갑자기 힘이 벌떡 나서 마루 밑에서 속 빠져나오면서,

“내가 떠나마수에 나 경승 끌라우?”
〔웃음〕

아 브니깐두부 참〔청취불능〕

“아 그래 자기가 광화문을 때려 마수면 뭘 어떻게 떠려마수냐”구.

“그저 도꾸루 떠려마수죠 뭐.”

“아 무슨 도꾸루 광화문을….”

“나 윷 줄는 줄이 삼십근 짜리 도꾸루 몇년 적어지 고개 텁색 깨지겠오.”

“그 도꾸루 가져오라”구.

“그럼 여기 있으라”구.

그 들구 솟구뎅이 뛰어가서 도꼴 갖
다주는데 보니 도꾸가 큰 떡메만 하지.
[웃음]

“됐다”구.

그래 그 광화문 뚜드려 마수구 경승
했어. 그래 지금 도꾸경승이 아니?
[웃음] 게 원씨네 집에서 도꾸경승 하
나밖에는 없어.

우리나라에 경승이 제일 많이 난 집
이 동래 경씨 집에서 영의정이 다섯이
나고 좌의정이 일곱이 나고 우의정이

다섯이 나고 열일곱이 났어. [동래경
씨요?] 동래 경씨. [예예] 그리고 고
담엔 누가 많이 났느냐, 남양 홍씨네
집에서 경승이 열다섯이 났고, 영의정
좌의정 합해서 열다섯이 나고 고담엔
또 누가 많이 났느냐, 청송 심씨네 집
에서 경승이 열서이가 나구, 청송 심씨
그 집에서 열셋이가 경승이 나구. 그
래 구선 그저 보통 너더댓, 그저 서넛,
그저 이렇지 단 열두 넘어간 집이 벌
루 없어.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1. 답사 개요

- (1) 기간 : 1990년 4월 25일 ~ 4월 28일
(3박 4일)

(2) 지역 : 경기도 여주군 및 강원도 원주군 접경지역

(3) 목적 : 조사지역의 방언을 어휘, 음운, 문법면에서 조사

(4) 참가인원 : 이기문 선생님 외 총 21명

(5) 준비과정 : 학부 2학년 참가자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1시간씩 모두 5회의 모임을 통해 방언조사 질문지 사용방법과 음성전사 방법을 익혔다.

2. 현지조사 과정

- (1) 조사단 구성
 단장 : 이기문 선생님
 지도교수 : 이병근, 이현희 선생님
 조교 : 이호경, 정숙희

그. 전동면

7. 부록

- 1조 : 이선영(歇 1), 임경조(歇 1),
이재희(학 4), 이선웅(학 2)
2조 : 이호승(歇 1), 한성우(학 3),
오진영(학 2), 이서아(학 2)

(2) 조사지적 및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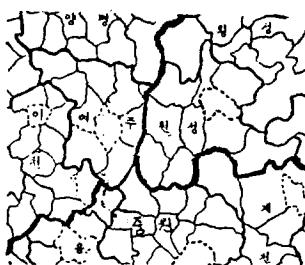
- #### 7. 경기도 여주군 첨동면

- 1조 : 김은배(남, 73세)

2조. 악수 등(음, 음식)

- ... 강원도 원주시 구온면

- 1초. 송귀족(남, 75세)



〈조사지역 지도〉

(3) 질문지

한국방언조사질문지(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 1~3권(어휘편)

(4) 기록

7. 조사항목의 방언형을 음성기호로 전사하고 동시에 테이프에 녹음했다.
 8. 음성전사에 사용한 기호는 다음과 같다.

모 음
ü i n
ö e o

자 음			
p	t	c	k
p'	t'	c'	k'
p ^h	t ^h	c ^h	k ^h
s			h
s'			
m	n		v
l			
반모음			
w		y	

*위의 기호 외에 다음과 같은 기호가 사용되었다.

- ① E : e와 ε의 중간음, 娱乐平台 : i와 ə의 중간음
- ② b d j g : p t c k의 유성음
- ③ ʃ : s의 구개음
- ④ r : l의 탄설음
- ⑤ 모음의 장음을 [a:]와 같이 나타냈다.

(5) 조사일정

- ㄱ. 4월 25일 오전 : 서울 출발
- ㄴ. 4월 25일 오후~27일 오후 : 조별로 방언조사 진행
- ㄷ. 4월 27일 오후 : 조사단 전체 인원이 여주읍에 도여 자체 평가회를 가졌다.
- ㄹ. 4월 28일 오전 :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참배
- ㅁ. 4월 28일 오후 : 서울 도착

3. 결과 및 평가

- (1) 정리 : 각 조의 조사 결과를 모아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다시 정리했다.

(2) 결과 보고 : 1990년 5월 29일 1990

학년도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결과 보고 및 최단식에서 담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3) 평가

ㄱ. 4월 27일 여주군에서 있었던 방언반 담사 평가회에서 이번 담사가 참가자 모두의 노력과 서로간의 협조에 의하여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또 언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ㄴ. 다음은 의의 평가회에서 앞으로의 더 나은 담사 활동을 위해 지적한 사항들이다.

- ① 담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 사용방법 및 음성전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 ② 현지에서 곧바로 제보자를 구하게 되면 조사 목적이 맞는 제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담사에 앞서 좋은 제보자를 미리 구해놓을 필요가 있다.
- ③ 조사자들 사이의 역할 분담을 잘해서 전시기록과 녹음에 보다 충실히 필요가 있다.
- ④ 조사결과를 잘 정리하여 앞으로 2차적인 방언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4)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총리 : 이정복, 황선엽
보고서 작성 : 이진복)

번호	조사형태	첨동변(1조)	첨동변(2조)	부론변(1조)	부론변(2조)
001	비 비이사 비(월매)	pe peisak pe	pe peisak pe	pe peisak peisak nū	pe peisak peisak nū
-1					
-2					
002	느	nū	nū		
003	볍	pe's'i	pe's'i		
004	웃자리	mojari	mojari		
005	김매다	kilm̥eda	kilm̥enda		
-1	애벌/두벌 (매터)	əbal/tubal	a:inomma:nip̥e: idimme:da		
006	눔	*cimp̥um(pal da)	*i:lk'un		
007	절두리	ac-insei	sep'ap		
008	호미꽃이	homis'ise	hamis'ise		
009	쌩차리	k'we:ygwari	k'we:ygwari		
010	챙기	cenggi	cəggi		
011	보습	posap	posip		
012	쇠	sō	muse		
013	벗	pyat	pyat		
014	극궤이	kikc'egi	kukc'egi		
015	砂浆	s'a:re	s'a:re		
016	번지	pənji	pənji		
017	호미	homi/homeji	həm̥i		
018	자루(ऋ)	caru/cari	caru		
019	规章制度	kwe:ji	kwe:ji		

번호	조사형태	첨 동 면 (1조)		첨 동 면 (2조)		부 론 면 (1조)		부 론 면 (2조)	
		조사형태	소리	조사형태	소리	조사형태	소리	조사형태	소리
020	척스량	sojirap		sojirap		sojirap		s'ojirap	
021	샵	sap		sap		sap		sap	
022	농기구			yə:njaŋ		nongigu		yə:njaŋ	
023	별단	pet'an		pet'an		pyət'an		pyət'an	
024	벗거리	pek'ari		pek'ari		pe:k'ari		pe:k'ari	
025	벼슬이	pehułc'ige	*c'ot'kc'ipk'ε			hulic'ugi		c'embik'igε	
-1	그네					c'ige		pec'ipk'ε	
026	개상	c'et'ol		c'et'ol		c'ejil		cip	
027	쿄	cip		cip		sek'wagi		sek'wagi	
028	제례가	kyat'egi/ssk'wagi		kyat'egi/ssk'wagi		sek'i		sek'i	
029	새끼	sek'i		*caige		k'o:da		k'o:da	
-1	포다	k'o:nda		k'o:nda		nok'in/nok'in		nok'in	
030	노끈	nok'in		nok'in		toruk'ε		toruk'ε	
031	도리체	torik'ε		torik'ε		magsak		magsak	
032	评议	magsak		magsak		mep'apsək		mep'apsək	
033	(짚) 벗기	mep'apsək		mep'apsək		kwaŋjuri/kwaŋuri		kwaŋjuri	
034	광주디	kwaŋjuri		poguni		pagini		pagini	
035	마구나	poguni		tugumi		tugumi		tugumi	
036	벽등구미	tugumi		sam'tsemi		sam'tsemi		sam'tsemi	
037	삼례기	sam'tsemi		cəglut'əŋ		cəglut'əŋ		cəglut'əŋ	
038	질구	cəglut'əŋ	cəglut'ε/cəlgugwogi	cəglut'ε/cəlgugwogi	cəglugwogi	cəglugwogi	cəglugwogi	cəglugwogi	cəglugwogi
039	철구공이	cəglut'ε/cəlgugwogi	tidil'aga	cəglut'ε/cəlgugwogi	tidil'aga	cəglugwogi	tidil'aga	cəglugwogi	tidil'aga
040	더털봉이	tidil'aga							

번호	조사형태	첨동형(1조)	첨동형(2조)	첨동형(3조)	부른체(1조)	부른체(2조)
041	방앗공이	papadegari/papagogi	pagak'ogi	hwak	hwak	papak'wegi
042	화	hwak	hwak	me:t'ul	me:t'ul	hwak
043	매들	me:t'ol	me:t'ol	amjö/suijö	*yapc'en	me:t'ol
-1	암석/수석	amjö/s'suijö	swæk	swæk	amjö/suijö	amjö/suijö
044	쐐기	s'wegi	s'wegi	po:c'im	po:c'im	s'wegi
-1	법			ke	ke	
045	거	wage	wage	we:nge/wa:ngé	wage	kye
-1	왕겨	kounge/tigé	kounge	ko:nge	ke	we:ngé
-2	등겨	k'i:	k'i:	k'i:	ke	tigé
046	커	k'a'bunda	k'a'bunda	k'abunigga	k'abulrida	c'i:
-1	꺼풀나	algemi	algemi	algemi	algemi	c'i:
047	어깨띠	pori	pori	peri	peri	k'abulrida
048	보리	k'a:mbügi	k'a:mbügi	k'a:mbügi	k'a:mbügi	algemi
049	찰무기	pat	pat	pat	pat	pori
050	발	pat'uk	pat'uk	pat'urag	pat'urag	k'a:mbügi
-1	발등	pat'urak	pat'urak	pat'urak	pat'urak	pat
-2	발두득	pat'orag	pat'orag	pat'orag	pat'orag	pat'urak
-3	발고랑					pat'orag
-4	발이랑					pat'orag
051	풀	p'at	p'at	p'at	p'at	ko:l
052	조	cops'a:l/sæuk	co	coisak	si:sik	ko:l
-1	조이삭	coisak/cot's				ko:l
053	수수	susu	susu	susu	susu	ko:l

부호	조사형 목	첨 동 범 (1조)	첨 동 범 (2조)	부 론 범 (1조)	부 론 범 (2조)	부 론 범 (2조)	
						부수의	부수의
-1	수수의 께	k'ε	susunips'agü	susunips'a	K'ε		
054	찰께/풀께 (곡식)사다	c ^b amk'ε/tilk'ε (s'ari)nenda/p'alda	c ^b amk'ε/tilk'ε p ^b anda/tonsanda	c ^b apk'ε/talk'ε p ^b anda	p ^b alda		
-1	(곡식)찰다	p ^b aro:nda	koksakp ^b alga:nda	sanda	sada		
055	육수수	oks'i:gi	oksa:k'i	oksuk'u	oksuk'u		
056	무우	musu	mu:	mu:	musu		
057	무우말랑이	mu:malrepi	mu:malrepi	mu:malrepi	mu:malrepi		
-1	장다리무우	capdarimusu	kegaris'i:regi	muc'apari	muc'apari		
-2	시래기	s'iragi	s'iragi	s'iregi	s'iregi		
058	체소	*p ^b usəggu/c ^b e:so		c ^b e:so	c ^b e:so		
059	나풀	namul	namul	namul	namul		
060	고경이	ko:geji	ko:geji	ko:geji	ko:geji		
061	자자	p'a	p ^b a	p ^b a	p ^b a		
062	자자	p ^b as'i	p ^b as'i	p ^b as'i	p ^b as'i		
-1	자자	koguma	koguma	koguma	koguma		
063	한자	kamja	kamja	kamja	kamja		
-1	가지	kaji	kaji	kaji	kaji		
064	한자	kimch'i	kimch'i	kimch'i	kimch'i		
065	작두기	k'akt'ug:i	k'akt'ug:i	k'akt'ug:i	k'akt'ug:i		
066	간장	kanjang	ci:ra:jang	kanjang	kanjang		
067	두부	tubu	tubu	tubu	tubu		
068	풀리니	pulgunda	-1	pulgunda	pulgunda		

번호	조사형태	첨 동 범 (1조)	첨 동 범 (2조)	부 론 범 (1조)	부 론 범 (2조)
069	종나풀	k ^b opnamul	k ^b opnamul	k ^b opnamul	k ^b opnamul
070	상추	sage ^b u	sage ^b u	sage ^b u	sage ^b u
071	오이	oi	oi	oi	oi
-1	오이소박이	oisobegi	oisokp'egi	oisobegi	oisokp'agi
-2	오이지	oiji	oiji	oiji	oiji
072	부추	puc ^b u	puc ^b u	puc ^b u	puc ^b u
073	김	cim	kim	cim	cim
074	반찬	pan ^b an	pan ^b an	pan ^b an	pan ^b an
075	국물	kupmul	kupmul	kupmul	kupmul
076	술	sot	sot	sot	sot
-1	가마	kamasot	kamasot	kama	kama
077	이남박	inamak	inamak	inambak	inambak
078	조리	cori	cori	corepi	corepi
079	주걱	cugak	cugak	cugak	cugak
080	누룽지	nurungi	nurungi	nurujji	nurujji
-1	눌은밥	nureubap	nureubap	nurubap	nurubap
081	승_unix	supnup	supnup	supnyuŋ	supnyuŋ
082	가루	karu	karu	karu	karu
083	玹박	hint'æk	hint'æk	hint'æk	hint'æk
-1	가례박	karet'æk	karet'æk	karet'æk	karet'æk
084	백설기	t'æk'are	t'æk'are	peks'älgi	himmuri
085	밀기울	himmuri	milk'iul	miliul	miliul
086	국수	kuks'u	kuks'u	kuks'u	kuks'u

번호	조사형태	첨동법 (1자)		첨동법 (2자)		부론법 (1자)		부론법 (2자)	
		부	론	부	론	부	론	부	론
087	고령 구미	k'umi k'umi		komyyeg k'umi		*k'umi k'umi		kömyøŋ kümi	
-1		opimi		oþimi		oþ'im/ seal[ʃin		seal[ʃim]	
088	새알섬	sujibi		sujibi		sujibi		sujibi	
089	수제비			*yak'wa				*yak'wa	
090	과줄	t'ubep		kilgim		t'ubap		*pap'ul	
091	튀밥	cilgrim		sik'ye		kilgim		yøcilgum	
092	엿기름	sik'ye		kamju		sik'ye		sik'ye	
093	식혜					kamju		kamju	
-1	김주								
094	식혜	kirit		kirit		kirit		kirit	
095	그릇	siru		siru		siru		siru	
096	시루			sirumit		sirumit		sirumit	
-1	시루벌			sirup'an		sirup'an		sirup'an	
-2	시루번			t'uk'ë		t'uk'		t'ok'	
097	뚜껑	sodan		t'ukp'egi		t'ukp'egi/t'ugari		t'ugari	
098	뚝배기			t'ukp'egi		t'ugari		t'ugari	
099	나가지	pajaji		pajaji		pajaji		pajaji	
100	부엌	pa:k/pu:k		po:k		pa:k/po:k		puak	
101	아궁이	pogwadjii/agupi		agojj/pogari		pogangi		pogari	
102	부두마	put'umak		put'umak		put'umak		put'umak	
103	부지깽이	puikeji	i	puikeji	i	puikeji	i	puikeji	i
104	고무체	komulge		komulge		komulge		komulge	
105	후신	pusap		pusap		pusap		pusap	

번호	조사형국	첨동변(1조)	첨동변(2조)	부른변(1조)	부른변(2조)
106	속	c ^h amstut k'insut hwari	suit		suit
-1	찰속				
-2	큰속				
107	화로				
-1	화롯				
108	부젓가락	pujak' ^a taru'o	hwari: hwarip'ul pujak'al kumagse:	hwari: hwarip'ul pujak'al kumagse:	hwari: hwarip'ul pujak'al kumagse:
109	다리 쇠	saks'			
110	쇠 쇠	saks'o			
111	납阐대	tambet' ^e			
-1	풀부리	mulp'uri	tambot's mulc'uri k'oqari	tambot's mulc'uri k'oqari	tambot's mulc'uri tambot's
-2	납阐明	k'ok'i			
-3	납阐明 대	tambet'l'			
112	성냥	segnyag			
113	부시	pusi	segnyad	segnyad	segnyad
114	글뚝	ku:lt'uk	pusi	pusi	pusi
115	그을음	k':rim	ku:lt'uk	puji	puji
116	냅다	nept'a/nunbu:jida	k':rim	ku:lt'uk	ku:lt'uk
117	살강	salga	nept'a/pujinda	ku:lt'uk	ku:lt'uk
118	시렁	chireo	salgwag	ku:lt'uk	ku:lt'uk
119	선반	senban	nept'a/pujinda	ku:lt'uk	ku:lt'uk
120	서랍	sersap	salgwag	ku:lt'uk	ku:lt'uk
121	调剂	*apt'ajj	senban	serap	serap
122	재물 쇠	camult'og	serap	kye:c'ak	*apt'ajj
					camult'og

번호	조사형	부	문	부 문 번 (2회)		부 문 번 (1회)		부 문 번 (2회)	
				설	동	설	동	설	동
123	일 채	yeljø	yals'ē	camuljø					
124	베 개	pegs	pege	pige/ pegs					
125	목 천	moke'bim	t ^b omak	t ^b omak					
-1	외 침	t ^b oe'bim	t ^b oe'bim	t ^b oe'bim					
126	누비 이 흐	nubibul	nubibul	nübi:bul					
127	마루	maru	maru	maru					
128	미 단 이	milc'ajii	midaji	midaji					
-1	여 단 이	*uc'akmun	*uc'akmun	*uc'uri					
129	풀 채 귀	tole'agu	to:l'c'agu	perəmc'ak					
130	벽	pyæk	pyæk	kupt'uri					
131	굽 도 려	kupt'ori	hiks'on	hiks'al					
132	흙 손	hiks'on	k'yal	p ^b ulk ^b al					
133	귀 암	k'yal	p ^b ulk'uyal	p ^b ulp'i:					
-1	풀 비	p ^b ulk'uyal	coji/copi	coi					
134	종 이	coji	k'ugrajinda	*nadjelida					
135	구 격 지 타	k'ugrajinda							
-1	구 기 타								
136	치 풍	cibup	ciboy/cibuŋ	cibon					
	사 닥 타 타	sedari	sadari	scdari					
137									
138	기 와 침	ke'waijjip	kiajjip	ke'waijjip					
139	조 카 침	ch'oqajjjip	iəjjip	ch'oqajjjip					
140	이 업	iəjjip	yəŋningə	iəŋ					
141	얼 타	yəŋningə		yək-					

번호	조사형태	첨동변(1초)	첨동변(2초)	부동변(1초)	부동변(2초)
142	이다	i:nida	i:nda	ida	ida
143	용마를 -1	yoguse t ^b inda	yoguse t ^b inda	yopje ^ø t ^b ienda	yopmaru t ^b idea
144	기둥	kidu ^ø	kidu ^ø	kidu ^ø	kidu ^ø
145	주춧돌	cuc ^b ut'ol	cuc ^b ut'ol	cuc ^b ut'ol	cuc ^b ut'ol
146	서까래	sak'are	sak'are	sak'are	sak'are
147	제비	c ^b əma	c ^b əma	c ^b e:pi	c ^b ojirak'
148	추위	c ^b unye ^ø	c ^b unye ^ø	c ^b unye ^ø	c ^b unye ^ø
149	낚수를	naks'inmul	naks'unmul	naks'unmul	naks'unmul
-1	기스락을	söjraqmul	cijraqmul	cijraqmul	cijraqmul
150	고드름	kodirim	kodirim	kodiremi	kodiremi
151	울타리	ult'ari	ult'ari	ult'ari	ult'ari
152	담	tam	tam	tam	tam
153	풀	t'il/pordag	tünnadag	popdag	popdag
154	뒤걸	tük'at	cagt'okt'e	t'uk'at	t'uk'at
155	장독대	cagt'okt'e	tük'an/pyənso	cagt'uk'an	cagt'uk'an
156	변소	tük'an	tuk'an	t'ukan	t'ukan
157	샘	se:m	se:m	se:m	se:m
158	우물	umul	umul	umul	umul
159	두레박	turbak	turbak	t ^b arabak	t ^b arabak
160	포아리	t'uarı	t'uarı	t' uari	t' uari
161	도량	t'orad	t'orad	t'orad	t'orad
-1	복도랑	pot'orad	pot'orad	pol'orad	pol'orad

번호	조사형태	첨동형 (1초)		첨동형 (2초)		부론형 (1초)		부론형 (2초)	
		keul	sü:	kep ^b um	suc ^e	keul	cilk ^a urepi	sü:	kep ^b um
162	개울	keul	sü:	kep ^b um	suc ^e	keul	cilk ^a urepi	sü:	kep ^b um
163	수렁								
164	거품								
165	수퇘								
166	구멍								
167	뿔새								
-1	뿔다								
-2	에벌								
-3	두벌								
168	마듬엇풀	tadimit'ol		tadimit'ol		tadimit'ol		tadimit'ol	
-1	마듬이黜	tadimijil		tadimijil		tadimijil		tadimijil	
169	다리미	tarimi		tarimi		tarimi		tarimi	
170	인두	indu		indu		indu		indu	
-1	다리마	tarinda		tarinda		tarinda		tarida	
171	허리띠	harit'i		harit'i		harit'i	/hyakt'e	harip'a	
-1	가죽허리띠	sekt'e		sekt'e		sekt'e		sekt'e	
-2	헝겊허리띠	harit'i		harit'i		harit'i		harip'a	
172	두루마기	turumagi	/hurumegi	turumagi	/hurumegi	turumegi		turumegi	
173	얼납	yapnam		yapnam		yapnam		cumanı	
-1	한복주머니	hojumani		hojumani		cokjumani		cokjumani	
-2	양복주머니								
-3	주머니								
174	고束이	kojeipi		kojeipi		kojeipi		kojeipi	

번호	조사형태	적동형(1초)	적동형(2초)	부동형(1초)	부동형(2초)
175	침ív이	ca:mbe̥ji	ca:mbe̥ji	ca:mbe̥ji	ca:mbe̥ji
176	두렁이	turəg̚'ima	turəg̚'ima	torag̚'ima	torag̚'ima
177	누더기	nudegi	nudegi	cinot	cinot
178	벼선	pasən	pasən	posən	posən
179	데님	tenim	tenim	tenim	tenim
-1	메다	meda	meda	meda	meda
180	짚신	cips'in	cipsegi	cips'in	cipsegi
-1	미투리	mitt'uri	mitt'uri	mitt'uri	mitt'uri
-2	삼다	sa:mda	sa:mda	sa:mt'a	sa:mt'a
181	나막진	namak's'in	namak's'in	namaks'in	namaks'in
182	옷감	otk'am	*piruk	otk'am	p'iruk
-1	춥다	k'int'a	k'int'a	k'int'a	k'int'a
-2	흔수집	honsuk'am	chedan	honsouk'am	honsouk'am
-3	풀옷/점옷	hodot/k'yebot	hodot/cabot	hodot/cabot	hodot/cabot
183	헝겊	hang̚ep	hip̚ep	hi:ng̚ep	hi:ng̚ep
184	집다	kip't'a	kit'a	ci:da	ci:da
185	제봉풀	cabat'ni:l	cabap'ni:m	cabap'ni:m	cabap'ni:m
186	풀무	kolumu	kolmi	kolmaki:/kolmə	kolmaki:/kolmə
187	가위	kase	kase	kase	kase
188	반진고리	panjik'ori	panjik'irut	panjik'irut	panjik'irut
189	호다	ho:da	hwada	hwada	hwada
190	뻬	pe	pe	pə	pə
191	솜	so:m	so:m	so:m	so:m

번호	조사형	첨동언(1조)	첨동언(2조)	부른변(1조)		부른변(2조)	
				모크와	s'ie	모크와	s'ó
192	목화	mok̚wa		nüe		nüe	
193	썩아	s'ia		k'oc̚u		k'oc̚u	
194	누에	niue		pəndigi		pəndigi	
-1	고치	k'oc̚bi		nabəj		nabi	
195	번백기	pəndigi		p'ognamu		p'ognagu	
-1	누에나부	pəndginabeji		odoj		odoj	
196	뽕나무	pognamu		odoj/odū		odoj	
197	오니	odoj		məri		məri	
198	머리	mari		tegari		tegari	
-1	내가리	tegari		twejjedegari		twejjedegari	
-2	꾀지머리	twejjedegari		marik̚arak		marik̚arak	
199	머리가락	marik̚arak		kama		kama	
200	가마(旋毛)	kama		karimma		karimja	
201	가로마 (가로마)	karima		t̚ada		t̚ada	
-1	다다	t̚ada		pidim		pinuri	
				t̚ak/t̚eqəri		t̚eqəri	
202	비늘			ʃə:m		ʃə:m	
203	턱			ares'uyəm		ares'uyəm	
				utʃə:m		uts'uyəm	
204	수염			kurennaru		kurennaru	
-1	턱수염			mok		mok	
-2	콧수염						
-3	구체나부						
205	목						

번호	조사형	첨 동 명 (1조)	첨 동 명 (2조)	부 동 명 (1조)	부 동 명 (2조)
-1	모가지	mogaji	mogaji	mogaji	mogaji
206	얼굴	əlgul	əlgul	əlgul	əlgul
207	뺨	p'em	p'em	p'em	p'em
208	볼	pol	pol	pol	polt ^b egi
-1	보조개	polgari	polgori	polgari	polgari
-2	불거리	curims'al	curim(s'al)	curim	curim
209	주름살	curim's'al	imaecurim(s'al)	curim	curim
-1	이마주름살	nun	nun	nun	nun
-2	눈별주름살	nunt'ongja	k'əməlc'au	k'əməndojja	k'amandojja
210	눈(眼)	hinjau	hi:njau	norajangju	hinjau
-1	검은자위	nunt'upnja	nunt'ipj	nunt'ipj	nunt' ^b epi
-2	흰자위	—	puə't'a	—	pwe:t'a
211	눈두덩	—	nuns'əp	nuns'əp	nun' ^b əp
-1	—복다	nuk'op	nunk'op	nunk'op	nunk' ^b op
212	눈썹	tariki	tarek'i	tarek'i	tarek'i
213	눈곱	—	—	—	—
214	다리끼	—	—	—	—
-1	(上部)	—	—	—	—
-2	(下部)	—	—	—	—
215	소경	ſɔŋgaŋ	ſɔŋgaŋ	ſɔŋgaŋ	ſɔŋgaŋ
216	애꾸	ek'unun	ədabeni	ədabeni	ədabeni
217	코	k ^b o	k ^b o	k ^b o	k ^b o
218	입술	ips'ul	ips'ul	ips'ul	ips'ul

번호	조사형태	첨 동 체 (1초)	첨 동 체 (2초)	부 론 체 (1초)	부 론 체 (2초)
-1	(上部)	unniψ'ul arenips <u>ul</u>	unniψ's'al arenips's'al	s'ep'adak peŋari	unniψ's'al arenips's'al
-2	(下部)	sep'adak peŋari	sep'adak peŋari	peŋari	sep'adak
219	체	panbəŋari	panbəŋin	panbəŋari	panbəŋin
220	체 어 러	kü	kü	kü	kü
-1	발더 듣이	külp'uri	külk'it	külp'agu	külp'agu
221	느	küčəŋ	küčəŋ	küčəŋ	küčəŋ
222	느 뿐	küigē	küibige	küigē	küibige
223	느에 지	küməŋeri	kümək'əŋ	küməŋeri	kümək'əŋ
-1	느이 캄	küməŋət'a	sesut'ε	sesut'ε	sesut'ε
224	느며 캄 캄	sesut'ε	s'it'a	pinu	s'it'a
-1	느여 디	pinu	moyok/myək	myək	pinu
225	느 수 음 ㅌ	moyok/myək	mognal	mognal	moyok/myək
-1	쳇 디	mognal	sek'ap/c'begyən	sek'yəŋ	tipmul
226	비 누	sek'ap/c'begyən	pit	pit	sek'yəŋ
227	복 육	pit	elgebit	elgebit	pit
-1	복 몬	elgebit	c'bəmbit	c'bəmbit	elgebit
228	거 울	c'bəmbit	tari	tari	c'bəmbit
229	짖	tari	so:n	so:n	tari
-1	얼레 먹	so:n	ɔ:nson	ɔ:nson	so:n
-2	첨빛	ɔ:nson	ɔ:nson	ɔ:nson	ɔ:nson
230	다리	ɔ:nson	ɔ:nson	ɔ:nson	ɔ:nson
231	순(手)	ɔ:nson	ɔ:nson	ɔ:nson	ɔ:nson
232	원손	ɔ:nson	ɔ:nson	ɔ:nson	ɔ:nson

번호	조사형태	첨 동 범 (1조)	첨 동 범 (2조)	부 퉤 범 (1조)	부 퉤 범 (2조)
-1	오른손	parinson	parinson	parinson	parinson
233	손바닥	somp'adak	somp'adak	somp'adak	somp'adak
234	손가락	sonk'orak	sonk'urak	sonk'arak	sonk'orak
235	마디	medi	medi	medi	medi
-1	마-	temedi	temedi	temedi	temedi
236	겨드랑	cyədirapi	cyədrap	cadrəpi	cadrəp
237	쳇	cat	cat	cat	cat
238	뻬	pek'op	pek'op	pek'op	pek'op
239	하리	hari	hari	hari	hari
240	다리	tari	tari	tari	tari
241	가부자 (跏趺坐)	cʰeks'apdari	cʰeks'apdari	cʰeks'apdari	cʰeks'apdari
242	엉덩이	polgic'ak/sgpdegi	polgic'ak	ipdepi	ipdepi
-1	궁둥이	kudagi	kudəpi	kudəpi	kudəpi
243	넓적다리	napc'æk'tari	napc'æk'tari	napc'æk'tari	napc'æk'tari
244	무릎	muriþap	muriþap	muriþap	muriþap
245	오금	ogim	omp'egi	ogimnejgi	ogimnejgi
246	자리다	cərida	cərida	cərida	cərida
247	성강이	cəngegi	cəngegi	cəngegi	cəngegi
248	삐	p'e	p'yə	p'yəkt'agu	p'əkt'agu
249	복서찌	poks'ap'e	poks'al'e	poks'ags'i	poks'ags'i
250	부스럼	puijrem	puijrem	puijrim	puijrim
251	고름	ko:rim	ko:rim	ko:rim	ko:rim

번호	조사형·국	첨동·鬘(1조)		첨동·鬘(2조)		부론·ည(1조)		부론·ည(2조)	
		첨동	鬘	첨동	鬘	부론	ည	부론	ည
252	사마귀	samagu		sa:nangu		samagu		sa:magu	
253	두드러기	tudiregi		tudiregi		tudiregi		tudiregi	
254	벌	t'a:mt'i		t'a:mt'i		t'a:mt'i		t'a:mt'i	
255	벼름	pəjim		pəjim		pəjim		pəjim	
-1	기체총	kigee ^b oŋ		kigee ^b uŋ		kigee ^b oŋ		kigee ^b oŋ	
256	주근깨	cugink'ε		cugink'ε		cugink'ε		cugink'ε	
257	기비	cimi		cimi		cimi		cimi	
258	여드름	yə:drim		yə:drim		yə:drim		yə:drim	
259	볏	mə:ŋ/məŋ		mə:ŋ		mə:ŋ		mə:ŋ	
260	언청이	ət ^b eŋi		ət ^b eŋi		ət ^b eŋi		ət ^b eŋi	
261	굼보	əlgəbəŋi		əlgəbəŋi		əlgəbəŋi		əlgəbəŋi	
262	천연두	mama/sonnim		mama/sonnim		mama/sonnim		mama/sonnim	
263	하질	ha:kil		ha:kil		ha:kil		ha:kil	
-1	(毎日)			menurigogim				menurigogim	
-2	(隔日)			ha:kil		ha:kil		ha:kil	
264	홍역	honyak		honyak		honyak		honyak	
265	간지	ka:ŋgi/kop'ul		ka:ŋgi/kop'ul		ka:ŋgi		ka:ŋgi	
266	풀무진	t'alk'ugi/ talk'ukcil		t'alk'ugi/ talk'ukcil		t'alk'ukcil		t'alk'ukcil	
267	사례	sa:ri		sa:ri		sa:ri		sa:ri	
268	트럼	kattirim		t'hirim		t'hirim		t'hirim	
269	재채기	ce: ^b agi		ce: ^b agi		ce: ^b agi		ce: ^b agi	
270	하품	hap ^b um		hap ^b um		hap ^b um		hap ^b um	

번호	조사형태	점 음 (1조)	점 음 (2조)	부 음 (1조)	부 음 (2조)
271	기지개	kijigē	ki:jigē	kijigē	eijige
272	줄음	co:rim	co:rim	cem	cem
-1	줄다	colda	colda	colda	colda
-2	줄리다		co:lyapt'a	colrap't'a	colrida
273	ყ구	pa:ygu	pa:ygu	pa:ygu	pa:ygu
-1	쳐다	k'uda	k'uda	k'üda	k'üda
275	구리내	k'urinne	k'urinne	k'urinne	k'urinne
275	고리내	k'orinne	k'orinne	k'orinne	k'orinne
276	갓난이이	kannanegi	kannanegi	k'annanegi	k'annanegi
277	을	tol	tol	tol	tol
278	어린애	e:gi	e:gi	e:gi	e:gi/arinne
-1	여자아이				
-2	남자아이				
279	기저귀	kijagu	kijagi	kijagu	kijagu
280	통	t'on	t'on	t'on	t'on
-1	오줌	ojam	ojam	ojum	ojum
281	마髻다	meyapt'a	meyapt'a	merapt'a	merapt'a
282	누다	nuda	nuda	nu:da	nu:da
-1	뉘다	nuk'tida	nuk'tida	nük'tida	nük'tida
283	쏴다	s'ada	s'ada	s'ada	s'ada
284	자되다	cirida	cirida	cirida	cirida
285	포뇨기	p'odagi	p'odagi	p'odagi	p'odagi
286	체허(체하)	cerog'ënda	cerog'ënda	cerog'ënda	cerog'ënda

번호	조사·형·목	첨·동·면 (1조)	첨·동·면 (2조)	부·론·면 (1조)	부·론·면 (2조)
287	체 암 죄 암 근지 근지	c'ənjiōjam csł'ajieš' aŋ	cyamijam konjikonji	cyamijam cak'aycak' aŋ	cəemjəsm c'ik' aŋc'ik' aŋ/čsk'aŋ-
288	도리 도리	to:ridori	to:ridori	to:ridori	to:ridori
289	체 채 총	c'ak' ugc'ak'uŋ			c'ak'ak'buŋ
290	마트 마트 (마마트)	t'arot' aro	t'arut'aru	t'arot' aro	t'arot' aro
291					
292	이 쟁 이 쟁	tit' aŋt'i: aŋ			ajapajəŋ
293	부 라 브 라	pura:bura:	pura:bura:	pura:bura:	isapdalgap
294	안 나	ant'a	ant'a	ant'a	(karɔ) a:nt'a
-1	안 가 대				ɛpk'ida
295	비 룻 (비록을) 고 치 대	angida parit koc'ida	partjeđi konc'ida	parit	parit
-1					konc'ida
296	엄 살	əmsal	əmsal	əmsal	əmsal
297	세 암	se:m	se:m	se:m	se:m
298	공 기	kongi	kongi	kongi	kongi
299	고 누				k'ono
300	사 금 꽈 리	sagimphari	segimphari	segimphari	segimphari
301	소 꿈 걸	t'ogope'il/sok'opc'il	t'ongupe'il	t'ongupe'il	t'ongolec'il
302	숨 바 륙 걸	sumbak'okc'il/sumk'inegi	sumk'inegi	sumk'inegi	sumbak'okc'il/sumk'inegi
303	목 말	mudŋ	mudŋ	mudŋ	mudŋ
-1	양 허 대	ca:c'igi	ca:c'igi	ca:c'igi	anc'sinda
304	자 치 기				cae'igi

번호	조사형식	첨 동 범 (1조)	첨 동 범 (2조)	부 동 범 (1조)	부 동 범 (2조)
-1	(작은부류) (큰부류)	t'ok'inamu	met'i:gi	ca	cak't'egi
-2	(작은부류) (큰부류)	mal't'e	ce:gi	ce:gi	ce:gi
305	체기	ce:gi	ma:gwəl	magori	magori
306	명월	talmaji	cibulnori	cibulnori	cibulnori
307	천불늘이	cibulnori	yuit	yuit	yuit
308	우	yuit	to	to	to
-1	도	to	ke:	ke:	ke:
-2	개	ke:	ka:l	ka:l	ka:l
-3	걸	ka:l	yuit	yuit	yuit
-4	우	yuit	mo:	mo:	mo:
-5	모	mo:	kine	anjilk'ε	anjilk'ε
309	그네	kinε	anjilk'ε	sik'et'o	sik'et'o
310	밀	s'almε	s'ik'ε	p'ε:gi	p'ε:gi
311	설	p'ε:gi	p'ε:gi	a:le/yε:p'k'adge	yant'ε
312	篪이	əre	ku:i:laðse	kulrimi	kulrimi
313	열궤	ku:i:raðt's	əməni/əməni	əmuni	əmuni
314	줄削弱	əməni	əmma	əmma	əmma
315	여여나	əmma	əməm	əməm	əməm
-1	업마	əməm	abəji/abənim	abuji	abonim
-2	여마	abəm	ap'a	ap'a	ap'a
316	아마지	abəm	abəm	ebi	ebi
-1	아빠				
-2	아빠				

번호	조사형태	첨 동 료 (1초)	첨 동 료 (2초)	부 롱 료 (1초)	부 롱 료 (2초)	부 롱 료 (2초)
317	할미니	halmani	halmani	halmani	halmani	halmani
318	할아비지	harabəji	harabəji	harabəji	harabəji	harabəji
319	하니	haŋnim	hyəθ	hyəθ	saŋŋim	saŋŋim
320	언니	ɛnni	ɛnni	ɛnni	ɛnni	ɛnni
-1		nuna	nui;/nunim	nuna;/nu:i;	nuna;/nu:i;	nuna;/nu:i;
-2		op'a	op'a/orabəi	op'a	op'a/orabəi	op'a/orabəi
-3	오빠	a:u	a:u/ɔpsəu	a:u	a:u/ɔpsəu	a:u/ɔpsəu
	아우	auboda	tɔgsəpboda	a:su	a:su	a:su
-1	아우보다	a:ut'ada	a:ut'ada	a:sut'ada	a:sut'ada	a:sut'ada
-2	아우따다	kyət̚hon	*ca:n̚k'i	kyət̚hon	kyət̚honjanc'i	kyət̚honjanc'i
321	결흔	-1	canc'i	canc'i	canc'i	canc'i
	결흔잔치	menuri	menuri	menuri	menuri	menuri
	며느리	metəri	metəri	metəri	metəri	metəri
322	처녀	cʰənyə	ɛsəks'i	ɛsəks'i	ɛsəks'i	ɛsəks'i
323	새식	seseaks'i	seseaks'i	seseaks'i	seseaks'i	seseaks'i
324	새식식	sau	sau	sau	sau	sau
325	사위	olkʰe	/hyɔnnim	olkʰe	/hyɔnnim	olkʰe
326	울개	ʃinu:	ʃinu:	ʃinu:	ʃinu:	ʃinu:
327	시누이	mehyən	mehyən	mehyən	mehyən	mehyən
328	마누	me:bu	me:bu	me:bu	me:bu	me:bu
	마누	me:bu	me:bu	me:bu	me:bu	me:bu
-1		me:bu	me:bu	me:bu	me:bu	me:bu
-2		siajubəni	siajubəni	siajubəni	siajubəni	siajubəni
329	시숙	ʃidɔnsəŋ	ʃidɔnsəŋ	ʃidɔnsəŋ	ʃidɔnsəŋ	ʃidɔnsəŋ
		töryənnim	töryənnim	töryənnim	töryənnim	töryənnim
-1		-2		-2		-2

번호	조사형 목	첨 동 범 (1조)	첨 동 범 (2조)	부 동 범 (1조)	부 동 범 (2조)
-3	시 냉 낌	səbənim horebi	sebənim horbi	səbənim horebi	səbənim horebi
330	줄 아비	kwa:bu	kwa:bu	kwa:bu	kwa:bu
331	չ 어 비	ha:ngap	ha:ngap	ha:ngap	ha:ngap
332	환 감	hangapcanch'i	hangapcanch'i	yul's'unjanch'i	hangape'anch'i
-1	환 감 친 치	hyo:ja	hyo:ja	hyo:ja	hyo:ja
333	효 자	kʰinabaji/pesk'p'u	kʰinabaji/pesk'p'u	kʰinabaji/pesk'p'u	kʰinabaniim
334	백 구	cupbæk'p'u	sulk'p'u	tuc'ek'inabai	tuc'ek'inabai
335	충 부	caginabæji	caginabæji	caginabæji	caginabæji
336	숙 춘	samcʰon	samcʰon	samcʰun	aie
-1	산 춘	cokʰa	cokʰa	cokʰa	cokʰa
-2	조 카	cokʰat'äl	cokʰat'äl	cokʰat'äl	coc'hat'äl
-3	조 카 딸	i:mo	i:mo	i:mo	imonnim
337	이 모	komo	komo	komo	komo
-1	고 모	nam	nam	nam	nam
338	남	iut	iut	iut/it	iut
339	이 웃	mail/(topni	ma:l	mail	tonne
340	마 을	tanhwa	iəgi/yəgi	ye:gi	ye:gi
-1	이 악 기	moliqanda	ma:l/(ma:sil)ganda	ma:silganda	ma:silganda
-2	마 을 간 딸	ka:ge	ka:ge	ka:ge	ka:ge
341	가 계	kuməggage	kuməggage	kuməpk' age	kuməpk' age
-1	구 땅 가 기	capʰwasaŋ	capʰwasaŋ	capʰasaŋ	capʰasaŋ
-2	ջ ջ 허 상	ə:ima	ə:ima	ə:ima	ə:ima
342	얼 마				

번호	조사형목	첨동언	(1조)	첨동언 (2조)	부론언 (1조)	부론언 (2조)
343 -1	잔돈 거스르다	candon keśirēda	candon keśirēda	canjen keśirēda	canjen keśirēda	canjen keśirēt'on
-2	거스름돈	keśirēton	*usuri	keśirēton usari	keśirēton usari	keśirēt'on
344	우수리	usurit'on				
345	에누리	enuri				
346	답	te:m	te:m	te:m	te:m	te:m
347	대장간	te:japk'an				
348	풀무	p ^b ulmu			p ^b ulmu	
349 -1	모루체	meru	moru	s'ag'olməru	pac'jm̥o	
-2	썩리다	marumō	mape'i	mapch'it'ol	mayc'h'i	
350	바느질	perida	perida	signyao	perida	
351	마지기	pa:k ^b u	pa:k ^b u	pa:k ^b u/pa:k'u	pa:k ^b u	
352	마-체	majigi	majigi	majigi	majigi	
353	상	mari	pari	pari	pari	
353	상	s'aŋ	s'aŋ	s'aŋ	s'aŋ	
354	철체	k ^b ari	k ^b ari	k ^b ari	k ^b ari	
355	그루	kiru	ke	pon	ke	
356	포기	p ^b ogi	p ^b ogi	p'yəm	p ^b ok	
357	풀	p'yəm	ke	caru	p'yəm	
358	자루	caru	turim	turum	karak/caru	
359	두릅	turim	chuk	kat	kat	
360	죽	chuk	top	top	top	

번호	조사형태	첨동형(1초)	첨동형(2초)	부동형(1초)	부동형(2초)
361	국	mut	mut	k'urimi	kat
362	꾸러미	k'urəm	k'uremi	cap	k'iremi
363	챙	cap	cap	p'il	cap
364	챙	p'il	p'il	pyeən	p'il
365	챙	pyeən	pyeən	hana	pyeən
366	하나	hana	hana	tul	hana
367	풀	tul	tul	se:	tul
368	셋	set	set	ne:t	set
369	넷	ne:t	ne:t	ta:t	ne:t
370	다섯	tasət	tasət	ta:t	tasət
371	여섯	yəsat	yəsat	ya:t	yəsat
372	일곱	ilgop	ilgop	ilgop	ilgop
373	여덟	yədal	yədal	lepey	yədal
374	아홉	ahop	ahop	ahop	ahop
375	열	yəl	yəl	yəl	yəl
376	세 다	simul	simul	simul	simul
377	스물	sellin	sellin	sərin	sellin
378	성흔	mahn	mahn	mahn	mahn
379	마흔	sün	sün	sün	sün
380	쉰	yesun	yesun	yesun	yesun
381	여는	ilhin	ilhin	ilhin	ilhin
382	여는	yədin	yədin	yədin	yədin
383	여는				

번호	조사형부	접 동 범 (1조)	접 동 범 (2조)	부 론 범 (1조)	부 론 범 (2조)
384	아흔	ahin		ahin	ahin
385	스무 살	simusal	simusal	sumusal	sumusal
-1	스무 개	simuge		sumuge	
-1	스무 되	simudi	simudö	sumudi	sumudi
-3	스무 날	simurnal	simumal	sumumal	sumumal
386	마흔 삼			mahinsal	mahinsal
-1	마흔 개			mahinge	mahinge
-2	마흔 되			mahindö	mahindö
-3	마흔 일			mahinmal	mahinmal
387	설흔 아-쩌			sərinahop	sərinahops' al
-1	—살			mahnahop	mahnahops' al
388	마흔 아-쩌			mahinahops' al	mahinahops' al
-1	—살			jihnhana	jihnhana
389	천하나				Sühhahnsal
-1	—살			yesunset	yesunset
390	예순 이-쩌			yesunse:sal	yesunse:sal
-1	—살			ilhnahop	ilhnahops' al
391	일흔 아-쩌			kopbegi	kopbegi
-1	—살			haru	haru
392	급하다			it ^{b1} il	it ^{b1} il
393	하루			sahil	sahil
394	이틀				
395	사흘				

번호	조사형태	첨동형(1조)	첨동형(2조)	부론형(1조)	부론형(2조)
396	나흘	nahil	nahil	nahil	nahil
397	낮새	tat'se	tat'se	tas'ö	tas'ö
398	낮새	yət'se	yət'se	yəs'ö	yəs'ö
399	이례	ire	ire	ire	ire
400	여드레	yədire	yədire	yədire	yədire
401	아흐~애	ahire	ahire	ahire	ahire
402	열흘	yəllił	yəllił	yəllił	yəllił
403	고기	kogi	*seyən	kogi	kogi
-1	생선	seyən	pədakəgi	seyən	seyən
-2	민물고기	minmulgogi	minmulk'əgi	minmulk'əgi	minmulk'əgi
-3	고기(死)	ni:k'i	kogi	kogi	kogi
404	비끼	ni:k'i	milk'i	milk'i	kəgimegi
405	치느리미		nalge/ciniremi	ciniremi	nalge
406	아가미	cʰapsa	agami/nalgemı	nałgemi	nałgemi
407	청자	mik'uri	nebok	cʰapja	cʰapja
408	민꾸チャ지	so:pəri	mik'uraji	mik'uraji	mik'uraji
409	송사리		so:pəri	so:pəri	so:pəri
410	종고기			cugħari	cugħiraji
411	찌라미			pħiremi	pħiremi
412	울챙이			olčepi	olčepi
413	개고리			k'eguri	k'eguri
414	두꺼비			tuk'əbi	tuk'əbi
415	멸치			meħċi	meħċi

변호	조사부속	첨동벌 (1조)	첨동벌 (2조)	부론벌 (1조)	부론벌 (2조)
-1	(낱것)				
-2	(일련것)				
416	쳇	cət	cət	cət	cət
417	갈치	kalc̚i	kalc̚i	k'alc̚i	k'alc̚i
418	가오리	kaori	kaori	kaori	kaori
419	개	kay	kay	kiy	kiy
420	새우	seu	seu	seu	seu
421	다슬기	pet̚iri	pet̚ili:jɔgr	olp̚əgi	olp̚əgi
422	우렁이	ulgeñi	ulbepi	ulbepi	ulbepi
423	별똥이	talp̚əgi	talp̚əpi	ulgəgi	ulgəgi
424	서까	sak̚e	sak̚e	sak̚e	sak̚e
425	벼루	perugi	perugi	perugi	perugi
426	도기	mo:gi	mo:gi	mo:gi	mo:gi
-1	창구벌	capgubalre			
427	파리	p̚ari	p̚ari	p̚a:ri	p̚a:ri
428	뉘	ʃi:	ʃi:	ʃi:	ʃi:
-1	쉬슬다	ʃük'älda	ʃüs'älda	ʃük'älda	ʃük'älda
429	가지	ca:p̚k'asi	ca:p̚k'asi	ka:ji	ka:ji
430	구더기	kudigi	kudigi	kudigi	kudigi
431	서壅이	cirəpi	cirəpi	c:i:repi	c:i:repi
432	허壅	kəj̚i/həc̚up	kəj̚i	kəj̚i	kəj̚i
433	서머리	kəməri	kəməri	kiməri	kiməri
434	叟체	pəre	pəre	pa:gaji	pa:gaji

번호	조사형태	첨동형(1초)	첨동형(2초)	부동형(1초)	부동형(2초)
-1	낱벌체	nalp'alle			
435	비구니	pagumi/taŋhalle	pagumi	pagimi	
436	구렁이	kumbeji	kumbeji	kurimbeji	
437	그리마	kirima	kirima	kirima	
438	노래기	nonnegi	nonnegi	nonegi	
439	진딧물	cindenmul	cindenmul	cindenmul	
440	새우살이	harusari	harusari	harusari	
441	거미	kəmi	kəmi	kəmi	
442	네무기	met'ugi	met'ugi	met'ugi	
443	评议회비 (암표)	pangac'i	pangac'i	hwagach'i	
-1	(수컷)	pangac'i	pangac'i	hwagach'i	
-2	(수컷)	t'ek'act'i	t'ek'act'i	t'ek'act'i	
444	여치	yəč'i	yəč'i	yic'i	
445	비단체비			*ojims'age	
446	소금체이	mulk'əmi/mulmuday	sogimjeni	yət'apsu	
447	방개	page	page	pangs	
448	반포불	ke:t'opbul	ke:t'opbare	ke:t'opbul	
449	벌	pəri	po:l	pul	
-1	벌	t'e:gp'i	t'e:gp'i	t'e:gp'ibul	
450	진드기	cindigi	cindigi	cindigi	
451	소	so	so	so	
-1	황소 암소	hwapo:su/su:s'o	hwapo:su/su:s'o	hwajso	
-2		a:mso	a:mso	amso	

부호	조사-체-목	첨동-별 (1조)		첨동-별 (2조)		부른면 (1조)		부른면 (2조)	
		sobjí	kop'epí	sobjí	kop'epí	soñaji	kop'epí	soñaji	kop'epí
-3	송아지 고삐	452	끌다	453	竦에 소입억이	454	oyakh'an	455	oyakh'an
-1				mǣye	50mǣ	mǣye	50mǣ	463	oyajk'an
				jōmǣ	üyajk'an	üyajk'an	üyajk'an	-1	töm
				töm	sok'uri	sok'uri	cakt'egi	-1	töm
				cakt'egi	kuyuŋ	kuyuŋ	cakt'egi	-1	töm
				kuyuŋ/kuyuŋ	yamul	yamul	kuyuŋ	-1	töm
				yamul	yamulgwad	yamulgwad	yamul	-1	töm
				yamulgwad	ſöjuk	ſöjuk	yamulgwad	-1	töm
				ſöjuk	ſömulp'ak	ſömulp'ak	ſöjuk	-1	töm
				ſömulp'ak	yamso	yamso	ſöjuk	-1	töm
				yamso/yamsepi	mal	mal	ſömulp'ak	-1	töm
				mal	maðaji	maðaji	mal	-1	töm
				maðaji	ma:guk'an	ma:guk'an	maðaji/malsek'i	-1	töm
				ma:guk'an	t'üda	t'üda	ma:guk'an	-2	t'üda
				t'üda	ke:	ke:	t'üda	-2	ke:
				ke:	suk'ε	suk'ε	ke:	-3	suk'ε
				suk'ε	amk'ε	amk'ε	suk'ε	-3	amk'ε
				amk'ε	kapaji	kapaji	amk'ε	-3	kapaji

번호	조사형목	첨동변(1조)	첨동변(2조)	부론변(1조)		부론변(2조)	
				kwe:ji amkʰoeji sukʰoeji	kongji amkʰoyeji sukʰoyeji	tak sutʰak amt'ak pyəgari taktʰəl *talgiјaј pejil moi tak't'oŋ talgiјaј talgyal noranjaу hinjau keu tweji twejiul oreore sandweji yeu	konyeji amkʰonyeji sukʰonyeji tak/k'ok'o sutʰak amt'at pyəgari taktʰəl talgiјaј pejil moi talgit'oŋ talgiјaј talgyal noranjaу hinjau kyeu tweji twejiul oreore sant'weji/mkt'weji yeu
464	고양이	koyaji	kwe:ji	koŋŋeji	kongji	koŋŋeji	konyeji
-1	할코양이	amkʰoeji	amkʰoeji	sukʰoeji	amkʰoyeji	sukʰoyeji	amkʰonyeji
-2	수쿄양이	sukʰoeji	sukʰoeji	tak	tak	tak	tak/k'ok'o
465	닭	sutʰak	sutʰak	sutʰak	sutʰak	sutʰak	sutʰak
-1	수탉	amt'ak	amt'ak	amt'ak	amt'ak	amt'ak	amt'at
-2	암탉	pyəgari	pyəgari	pyəgari	pyəgari	pyəgari	pyəgari
-3	꿩아리	taktʰəl	taktʰəl	taktʰəl	taktʰəl	taktʰəl	taktʰəl
-4	닭털	taktʰəl	taktʰəl	*talgiјaј	*talgiјaј	*talgiјaј	*talgiјaј
-5	닭의 어리	takt'upari	takt'upari	pejil	pejil	pejil	pejil
466	벼슬	pesil	pesil	moi	moi	moi	moi
467	포이	tak't'oŋ	tak't'oŋ	talgit'oŋ	talgit'oŋ	talgit'oŋ	talgit'oŋ
-1	닭똥	talgiјaј	talgiјaј	talgiјaј	talgiјaј	talgiјaј	talgiјaј
-2	닭장	talgyal	talgyal	talgyal	talgyal	talgyal	talgyal
468	달걀	noranjaу	noranjaу	noranjaу	noranjaу	noranjaу	noranjaу
-1	노른자자와	hinjau	hinjau	hinjau	hinjau	hinjau	hinjau
-2	닭자자와	keu	keu	kyeu	kyeu	kyeu	kyeu
469	거위	tweji	tweji	tweji	tweji	tweji	tweji
470	꿩자	twejiul	twejiul	twejiul	twejiul	twejiul	twejiul
-1	꿩자우리	oreore	oreore	oreore	oreore	oreore	oreore
-2	오리오리	sandweji	sandweji	sant'weji/mkt'weji	sant'weji/mkt'weji	sant'weji	sant'weji
471	신끼자	yeu	yeu	yeu	yeu	yeu	yeu
472	여우	yeu	yeu	yeu	yeu	yeu	yeu

번호	조사형	적동형 (1초)	적동형 (2초)		부론형 (1초)	부론형 (2초)
			부	론		
473	노루	noru	noru	noru	noru	noru
474	토끼	t ^b ok'i	t ^b ok'i	t ^b ok'i/t ^b ok'weji	t ^b ok'i/t ^b ok'weji	t ^b ok'i/t ^b ok'weji
475	멧	c ^a u/tat	tot	c ^a u	c ^a u	c ^a u
476	울가비	olgem'i/opmu	olgem'i/opmu	olgem'i/opmu	olgem'i/opmu	olgem'i/opmu
477	산꿩이	salgw ^e ji	salgw ^e ji	salgw ^e ji	salgw ^e ji/sak ^e w ^e ji	salgw ^e ji/sak ^e w ^e ji
478	쇠	cü:	cü:	cü:	cü:	cü:
479	박쥐	pakcü	pakcü	pakcü	pakcü	pakcü
480	다람쥐	taramjü	taramjü	taramjü	taramjü	taramjü
481	두더지	tudeji	tudeji	tudeji	tudeji	tudeji
482	새	se:	se:	se:	se:	se:
483	깃	kit	kit	kit	kit	kit
484	매	me:	me:	me:	me:	me:
485	솔개	solge	solgem'i	solgem'i	solgem'i	solgem'i
486	까치	k'ac <i>i</i>	k'ac <i>i</i>	k'ac <i>i</i>	k'ac <i>i</i>	k'ac <i>i</i>
-1	까마귀	k'amagü	k'amagü	k'amagü	k'amagü	k'amagü
487	빼구기	p'ak'uks' ^e	p'ak'ugi	p'ak'ugi	p'ak'ugi	p'ak'ugi
488	뜸부기	t'imbuks' ^e	t'imbügi	t'imbügi	t'imbügi	t'imbügi
489	딱다구리	t'akt'aguri	t'akt'aguri	t'akt'aguri	t'akt'aguri	t'akt'aguri
490	꿩	k'oß	k'op	k'op	k'op	k'op
-1	까투리	ak ^b on/k'at ^b uri	k'at ^b uri	k'at ^b uri	k'at ^b uri	k'at ^b uri
-2	장기	suk ^b on	senk <i>i</i>	senk <i>i</i>	senk <i>i</i>	senk <i>i</i>
491	쫓통오리	k'ot	k'ot	k'ot	k'ot	k'ot
492		k'op'onori	k'ommongori	k'op'onori	k'ommongori	k'ommongori

번호	조사형	첨동형 (1초)	첨동형 (2초)	부辱면 (1초)	부辱면 (2초)
493	봉선화	po:psoŋhwa hebargi	po:pəŋhwa hebargi	po:pauja hebaregi	po:pauja hebaregi
494	해마리기	k'w:ari	k'w:ari	k'wai:i	k'wai:i
495	꽃리풀다	k'waribulda	k'waribulda	k'waribulda	cindalle
-1	꽃달래	cʰamk'ot	cindalle	cʰamk'ot	cʰəlc'uk'ot
496	진달죽	cʰəlc'uk'ot	cʰəlc'uk	cʰəlc'uk'ot	cʰəlc'uk'ot
-1	철쭉	Kacilbani	cʰik	Kacilbani	tokebik'ase
497	도깨비나비	cʰik	cʰik	cʰik	cʰik
498	꽃	cʰik	cʰik	cʰik	cʰik
499	덩굴	cʰik	cʰik	cʰik	cʰik
500	꽃이	neŋi/nastpi	teŋguł	teŋguł	teŋguł
501	진정이	ciliŋəŋi	neŋi/nastpi	nastpi	nastpi
502	달래	talre	ciliŋəŋi	ciliŋəŋi	ciliŋəŋi
503	씀바귀	s'imbagu/s'okſö	talre	talre	talre
504	고들빼기	kodilp'egi	s'imbagu	s'imbagu	simbagu/s'okſö
505	고비	kobi	kodilp'egi	kadilp'egi	kadilp'egi
506	뻘기	p'iregi	kobi	kobi	kobi
507	벌기	t'algi	p'iregi	p'irbigi	p'irbigi
508	개암	kayam	t'algi	t'alqu	t'alqu
509	머루	mə:ru	kayam	kegam	kegam
510	다래	tare	mə:ru	mə:ru	mə:ru
511	고슴	koyom	tare	tare	tare
512	청미래	koŋmiredeŋbul	koyom	koyom	koyam
513	미름	marim	koŋmiredeŋbul	koŋmiredeŋbul	koŋmiredeŋbul

번호	조사형	첨동변(1조)	첨동변(2조)	부론변(1조)	부론변(2조)
531 -1	갈취 그려 모으다	kalk'ü	kalk'ü	kak'e'i kilda	kak'e'i tok'i sanmarudöji sanjjisireü
532 도끼	산마루	to:k'i	tok'i	tok'i	sanmarudöji
533 기슭	kisil	sanc'adid	sanc'adid	samp'opuri	sanjjisireü
534 묘	myo/moi	samp'iyal	samp'iyal	cuyt'æk	moi
535 -1	꽃자리	moy	moy	moi	mai:c'ari
536 언덕	sanc'ari	moyt'ari	moyt'ari	mojari	piyal
537 비탈	a:ndek	a:ndek	a:ndek	mojari	piyal
538 벼랑	pint'al	pint'al	pint'al	nau:t'ækji	nau:t'ækji
539 예이리	pinye:d	pinye:d	pinye:d	meari	pau
540 마와	sanullim	sanullim	sannullim	pau	tolmag'ü:i
541 풀	pau	pau	pau	pau	cagal
542 작간	tol	tol	tol	tol	tol
543 모래	cagal	cadol	cadol	more	more
544 흙	megeshik	megeshik	megeshik	hik	hik
545 -1	hik	hik	hik	pauot	pauot
546 -1	이끼	nik'i	nik'i	k'ięgat	k'ięgat
547 -1	-끼다	k'iat'a	k'iat'a	ac:him	ac:him
548 -1	아침	ac:him	ac:him	co:bau	co:bau
	아침밥	ac:imp'ap	ac:imp'ap	sebyek	sebyek
	새벽	sebyek	sebyek	sebyak'ap	sebyak'ap
	새벽밥	sebyak'ap	sebyak'ap	naje(늦에)	naje(늦에)
	낮	naje(늦에)	naje(늦에)	nat/naje(늦에)	rat

번 호	조사형태	첨 동 범 (1초)	첨 동 범 (2초)	부 론 범 (1초)	부 론 범 (2초)
549	제 냄 -1	cənyək cənyəkp'ap	cənyək cənyəkp'ap	cinyək cinyəkp'ap	cənyək cənyəkp'ap
550	느 읊 느 읊	no:l	no:l	no:l	no:l
551	애 거 흡 별	hegarim pyə:l	hegarim pyə:l	hegarim pyə:l	hegarim pi:l
552	은 하 수 -1	inhasu	inhasu	talmuri	talmuri
553	탈 무 리 -1	talmuri	talmuri	hemuri	hemuri
554	네 일 글 꿈	hemuri neil	neil	ne:l	ne:l
555	-1	kilp'i	kilp'i	kilp'i	kilp'i
556	어 채 -1	kigilp'i əje	əje	kigilp'i əjek'e	kigilp'i əjek'e
557	그 채 -2	kijak'e kik'ijak'e	kijak'e kik'ijak'e	kijak'e kik'ijak'e	kijak'e kik'ijak'e
558	요 즈 읊 -1	yosai/yojim 적 은 설	yosai/yojim 적 은 설	yose: set'algimimnal	yose: set'algimimnal
559	-2	k'a:cisəl	k'a:cisəl	muginsebe	muginsebe
560	-3	muginjibə	muginjibə	isilbi	isilbi
561	느 개 이 솔 바	isilbi	isilbi	karapbi	karapbi
562	가 랑 바 소 나 기	karapbi s'onagi	karapbi s'onagi	s'onagi	s'onagi

번호	조사형태	첨동변(1조)	첨동변(2조)	부른변(1조)	부른변(2조)
563	ㄣ개	pange	pange	pange	pange
564	ㄣ학	perak	perak	perak	perak
565	უბ	o:bak	nuri	ubak	nuri/ubak
566	ჳ수	hopsu	hojsu		
567	가을	kail	ka:l		
-1	가을-아-다	kail-ejh-əda	ka:l-ejh-ədə	ka:l-ejh-əj	ka:l-ejh-əj
568	거울	kyaul	kyəul	caul	coul
569	진-눈-깨비	cinuk'abi	cinnunk'ebi	cinnunk'ebi	cinnunk'ebi
570	꾀-오-려-나-람	hōrəbaram	hōrəbaram	hōrəbaram	hōrəbaram
571	먼-지	mənji	mənji	mənji/məngə	mənji/məngə
572	아-지-체-이	ajirəji	ajireji	ajireji	ajireji
573	구-색	kusək	kusək	kusək'əpi	kusək'əpi
574	위	uy/i:u	uy/i:u	ii:	ii:
-1	위-마-을	unmal	unmal	unma:sil	unma:sil
575	아-래	are	are	are	are
-1	미	mit	mit	mit	mit
576	앞	ap'tiro	ap	ap	ap
577	뒤	tiro	tu:	tü	tü
578	질	kyat'ero	kyet	cat	cat
579	포-통-이	motijni	morepi	morepi	morepi
580	ჭ-ჭ-이	mogach'i	mok	mok	mogach'i
581	어-더	ədi	ədi	əde	əde